2013 3/4

디자인 산업 동향 브리프

3분기 실적 및 4분기 전망

DESIGN
마 음 을
움 직 여
세 상 을
바 꾸 다

2013.10

한국 디자인 진흥원 KIDP
www.designdb.com

한국 디자인 진흥원

www.designdb.com

본 보고서는 분기별 전문디자인업체의 체감 경기를 조사하여 디자인산업 분야별・지역별・경영활동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동향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연구자 고유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 자료는 www.designdb.com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
산업연구원 김홍석
02-3299-3056
thomaskim@kiet.re.kr

편집디자인
조은애 / 이유진

CONTENTS

한국경제와 디자인산업
2013년 3/4분기 현황 및 4/4분기 전망 — 03
요약 — 06

Ⅰ.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1. 2013년 3/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 08
2. 2013년 4/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 12
3. 전문디자인기업 인력현황 — 15
4.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 17

Ⅱ. 3/4분기 국내·외 디자인업계 주요 이슈 — 18

Ⅲ. 부록1
3/4분기 해외 디자인업계 이슈 – 덴마크 — 24

Ⅳ. 부록2
1.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 25
2. 2013년 3/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전망 조사표 — 27
3.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 28
4. 산업일반 통계자료 — 30

01 2013년 3분기 한국경제와 디자인산업

디자인 경기전망지수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미국의 양적확대 축소와 엔저현상 본격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와 중국경제의 성장세 회복 등 대외여건 개선 그리고 국내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디자인업계의 경기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제조업부문에 대한 내수부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기 양극화 현상 지속 등으로 인해 디자인업계가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아직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02 국내 경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GDP 성장률이 4월 전망치인 2.6%보다 다소 높은 2.8%를 기록한 점과 대외 여건의 점진적 개선, 추경 편성 및 금리인하 효과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성장률은 1%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국내의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세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확대, 건설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 여건 개선 외에 엔화 약세에 따른 대일 가격경쟁력 추가 약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기 회복과 중국경제의 성장 등에 따른 세계교역 증대 등 수출여건 개선으로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로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놓여 있다.

하반기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하듯 주요 기관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의 경기실사지수의 경우 업황지수가 8월 73으로 전월대비 1p 상승한데 이어 9월에도 77로 4p 상승하였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7월 90.7, 8월 92.7, 9월 94.4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모두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경기흐름에 대한 인식조사'는 국내기업의 10곳 중 9개가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비해 경기전망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등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디자인업계가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역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상케 한다. 한국은행의 업종별 경영애로요인 조사에서 제조업의 경우 내수부진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오히려 더 상승하여 내수의 존도가 높은 비제조업에 대한 내수부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우려를 불러왔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엔저에 따른 수출기업의 영향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의 실물경제 회복세와 연착륙 우려를 낳았던 중국경제의 수출증가와 산업생산 증가에 따른 실물경제 개선등은 향후 경제성장을 낙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03 경기전망

전문디자인업의 3분기 경기실적지수는 73.8p로 전분기 74.2p에 비해 0.4p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분기 61.2p에 비해서는 12.6p 상승하였다.

3분기 경기실적지수가 201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전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데 그친 점은 전분기부터 본격화된 디자인업계의 디자인 경기회복 기대감이 크게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계청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또한 2/4분기 97.4p로 전분기 87.9에 비해 9.5p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3분기 경기호전 이유로는 '내수활황'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30.2%), '자금난 해소'(15.1%) 순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업체 규모별로는 종사자수 10인 이상 업체와 9인 이하 업체간 내수활황에 대한 응답율이 각각 56.3%와 37.8%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경기회복 체감에서 있어서 대기업간 중소기업간 격차가 디자인업계에서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업종별로는 시각디자인업과 기타전문디자인업은 각각 74.5p와 71.9p로 전분기와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한 반면, 제품디자인업과 인테리어디자인업은 각각 78.6p와 68.4p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서는 상승하였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각각 4.9p, 7.6p 하락하였다. 업종별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인 제품디자인업의 지수가 78.6p에 머문 것에서 전체적으로 경기실적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현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디자인업계에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분기 경기 호전 이유의 경우 시각디자인업은 성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46.7%)과 인력난 해소(20.0%)가 크게 기여한 반면, 기타전문디자인업의 경우 내수활황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분기에 비해 지수가 하락한 제품디자인업과 인테리어디자인업의 경우 제품디자인업은 내수부진(54.2%), 불확실한 경제상황(33.3%), 비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33.3%) 등 주로 시장상황의 악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이러한 시장상황 악화에 더해 경쟁심화(22.5%), 자금부족(22.5%) 등의 요인이 겹쳐 보다 복잡한 특성을 보였다.

경영부문별 디자인산업 경기현황을 보면 채산성과 자금사정이 각각 75.1p와 73.7p로 전분기에 비해 각각 3.1p와 8.0p씩 상승한 반면, 인력사정은 전분기 93.3p에서 82.6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매출지수도 전분기 81.1p에서 75.7p로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매출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산성과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등 디자인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큰 폭으로 하락한 인력사정지수의 경우 경기회복의 반작용적인 측면이 있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디자인업의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05.6p로 전분기 103.9p보다 1.7p 상승하였고, 전년 동분기 79.1p에 비해서는 26.5p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1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경기실적지수가 다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전망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디자인업계가 향후 경기회복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3분기 경기지수와 마찬가지로 시각디자인업(110.1p)과 기타전문디자인업(108.8p)은 상승하고 제품디자인업(110.0p)과 인테리어디자인업(90.8p)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인테리어디자인업만 기준선인 100 이하의 낮은 경기전망지수를 보였을 뿐 나머지 3개 업종은 모두 고른 수준으로 100p 이상의 경기전망지수를 보였다.

지역별로도 서울권, 경인권, 기타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들은 모두 전분기와 전년 동분기에 비해 상승하거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경기전망지수가 상승한 권역의 경우 모두 기준선 100이 넘는 수준을 보였다. 특히 충청권(126.7p), 대경권(117.5p), 동남권(114.4p) 등 산업기반이 강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영부문별로는 매출지수를 제외하고는 채산성(104.6p), 인력사정(104.3p), 자금사정(103.3p) 모두 전분기는 물론 전년 동분기 대비 경기전망지수가 상승하였으며, 전분기 104.2p에 비해 0.5p 하락한 매출지수(104.7p)까지 모두 기준선인 100p 이상의 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경기를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수활황'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뒤로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36.2%), '자금난 해소'(16.3%), 순으로 나타나 '내수활황'과 '자금난 해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대신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등 3분기 다른 모습을 보였다.

04 분기 별 이슈
디자인업계인력현황

디자인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기대를 모으는 산업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2006년 ~ 2011년동안 디자인산업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11.7%를 기록하여 제조업의 1.4%와 서비스업 전체의 3.5%를 크게 앞질렀다.

이러한 고용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디자인산업의 향후 고용확대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65.1%로 '있다'의 28.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 당분간 디자인업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있다'라는 응답은 기타전문디자인업(34.2%), 시각디자인업(28.7%), 제품디자인업(28.6p)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대경권(35.0p), 충청권(33.3p), 서울권(31.5p)이 전체 평균을 웃도는 응답을 보였다. 업체 규모별로는 10인 이상 업체 28.6%, 9인 이하 업체 28.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디자인업계의 인력 채용방식은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인의 소개'와 '학교 추천 의뢰'가 각각 20.6%와 7.7%로 그 뒤를 따랐다. 업종별로는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는 기타전문디자인업(71.1p), 시각디자인업(70.2p), 제품디자인업(70.0p)이, '지인의 소개'는 제품디자인업(25.7%), 시각디자인업(24.5%), 인테리어디자인업(22.4%)이 '학교추천'은 인테리어디자인업(12.2%)이 높게 나타나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업종별로 요구하는 스킬 내용이 채용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체 규모별로는 10인 이상 업체에서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 비율이 79.4%로 높게 나타나 규모가 클수록 공개적인 방식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5년 미만' 경력자가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입'과 '6년~10년 미만'이 각각 28.5%와 7.6%를 차지하여 신입자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5년 미만'경력자에 대한 업종별 선호비율은 제품디자인업(70.0%), 시각디자인업(62.8%)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입의 경우는 기타전문디자인업(38.6%)만 평균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10인 이상과 9인 이하 업체 모두 선호비율에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규모에 따른 선호 경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종의 급여수준은 해당 업종에서의 우수인력 확보능력과 일자리 질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디자인업계의 경우 신입사원 급여수준은 연봉 '1,500만원~2,000만원' 수준이 53.7%로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00만원~2500만 미만' 22.4%, '1,000만원~1,500만원' 18.1%, '2,500만원 이상' 4.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테리어디자인업과 시각디자인업의 경우 1,500만원 미만 비율이 각각 22.9%와 22.4%로 디자인업계 중 상대적으로 저임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 2,000만원 이상 고임의 비중이 높고 1,500만원 미만의 저임 비중이 낮아 대형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일자리 질 면에서 앞서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디자인업계의 경우 신규인력확보 의사가 낮아 경기호황에 따른 수요측면에서의 인력확보 어려움이 크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디자인업계의 기여의 경우 당분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방식이나 선호하는 경력에서는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아 전체 디자인업계가 대체로 유사한 경력 인력이나 채용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신입사원의 급여 수준 문제이다. 전체 산업의 신입사원 급여수준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비교는 어려우나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디자인업계의 신입사원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자인업계의 우수한 인력 확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급여측면에서 일자리 질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업계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업계의 노동집약적인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디자인업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업계의 경기회복과 함께 업계 내부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홍석**

요약

Ⅰ.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1. 2013년 3/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3분기 경기현황지수는 **73.8p로 전분기(74.2p)대비 0.4p 하락**

- **업종별**
  상승 : 시각디자인업(71.8p→74.5p △2.7p), 기타전문디자인업(68.9p→71.9p △13.6p)
  하락 : 제품디자인업(83.5p→78.6p ▽4.9p), 인테리어디자인업(76.0p→68.4p ▽7.6p)

- **지역별**
  상승 : 충청지역(49.8p→90.0p △40.2p), 대구·경북지역(64.8p→82.5p △17.7p)
  강원·제주지역(88.9p→90.9p △1.0p)
  하락 : 서울지역(74.8p→70.8p ▽4.0p), 경인지역(73.2p→61.9p ▽11.3p)
  호남지역(83.9p→62.5p ▽21.4p), 부산·울산·경남지역(81.6p→90.5p ▽8.9p)

- **경영부문별**
  상승 : 채산성 (72.0p→75.1p △3.1p), 자금사정 (65.7p→73.7p △8.0p)
  하락 : 매출 (81.1p→75.7p ▽5.4p), 인력사정 (93.3p→82.6p ▽10.7p)

- **3분기 경기 호전 이유**
  '내수활황'(43.4%),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30.2%) 순으로 나타남

- **3분기 경기 악화 이유**
  '불확실한 경제상황'(35.1%), '경쟁심화'(19.0%)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남

2. 2013년 4/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4/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05.6p로 전분기(103.9p) 대비 1.7p 상승**

- **업종별**
  상승 : 시각디자인업(96.0p→110.1p △14.1p), 기타전문디자인업(85.3p→108.8p △15.5p)
  하락 : 제품디자인업(127.0p→110.0p ▽17.0p), 인테리어디자인업(104.9p→90.8p ▽14.1p)

- **지역별**
  상승 : 충청지역(111.4p→126.7p △15.3p), 대구·경북지역(108.9p→117.5p △8.6p),
  부산·울산·경남지역(114.3→114.4p △0.1p)
  보합 : 호남지역(110.0p)
  하락 : 서울지역(101.8p→99.0p ▽2.8p), 경인지역(104.7p→99.0p ▽5.7p),
  강원·제주지역(82.0p→72.7p ▽9.3p)

- **경영부문별**
  상승 : 채산성 (98.8p→104.6p △5.8p), 자금사정 (93.1p→103.3p △10.2p),
  인력사정 (102.5p→104.3p △1.8p)
  하락 : 매출 (104.2p→104.7p ▽0.5p)

- **4분기 경기 전망 호전 이유**
  '내수활황'(44.0%),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36.2%) 순으로 나타남

- **4분기 경기 전망 악화 이유**
  '불확실한 경제상황'(38.7%)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남

요약

3. 디자인전문기업 인력현황

- **고용확대 계획**
  '없다'가 65.1%,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28.2%의 비율을 보여줌

- **채용방식**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68.1%), '지인의 소개'(20.6%), '학교추천 의뢰'(7.7%) 순으로 나타남

- **선호하는 경력**
  '5년 미만'(62.7%), '신입'(28.5%), '6년~10년 미만'(7.6%), '10년 이상'(1.2%) 순으로 나타남

- **신입사원 급여 수준**
  '1500~2000만원 미만'(53.7%), '2000~2500만원 미만'(22.4%), '1000~1500만원 미만'(18.1%), '2500만원 이상'(4.9%) 순으로 나타남

4.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불변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12 3/4분기	2012 4/4분기	2013 1/4분기				2013 2/4분기				
			1월	2월	3월	평균	4월	5월	6월	평균	7월*
전문디자인업	87.9	111.0	71.1	70.8	121.7	87.9	99.7	110.3	82.2	97.4	94.4
서비스업 전체	104.7	107.6	101.8	100.3	106.6	102.9	105.4	107.6	107.1	106.7	105.5

II. 3/4분기 국내·외 디자인업계 주요 이슈

- 9월 23일, 잡스법(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생기업 육성방안)' 개정
- 창조산업의 든든한 후원자로 떠오르는 크라우드 펀딩, 디자이너에게도 좋은 기회
- 디자이너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위트스튜디오, '어시스터PS (디자인 마무리 작업을 자동화해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을 만들도록 지원)' 출시
-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이었던 유니버설디자인(UD,Universal Design), 소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계가 반드시 채택해야할 필수 디자인으로 재조명

III. 부록1

- 해외 디자인업계 이슈 소개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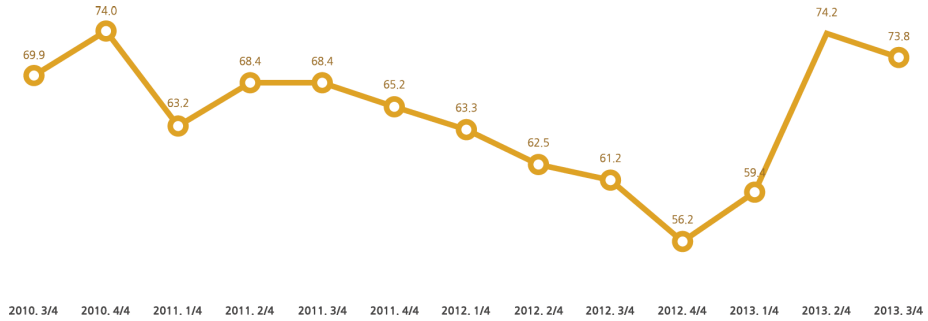
IV. 부록2

1.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2. 2013년 3/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전망 조사표
3.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4. 산업일반 통계자료

Ⅰ.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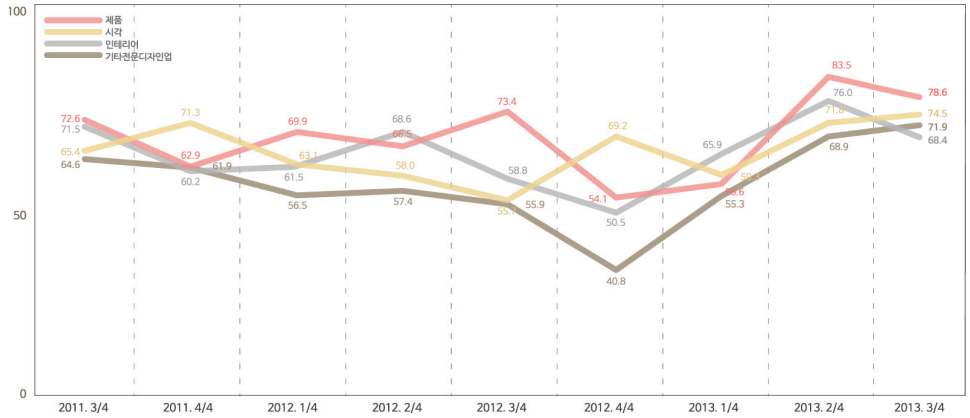
1. 2013년 3/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 디자인산업 경기 종합



(경기전반) 전문디자인업의 3/4분기 경기지수(D-BSI)는 73.8p로 전분기 74.2p 보다 0.4p 하락하였고, 전년 동분기 61.2p 대비 1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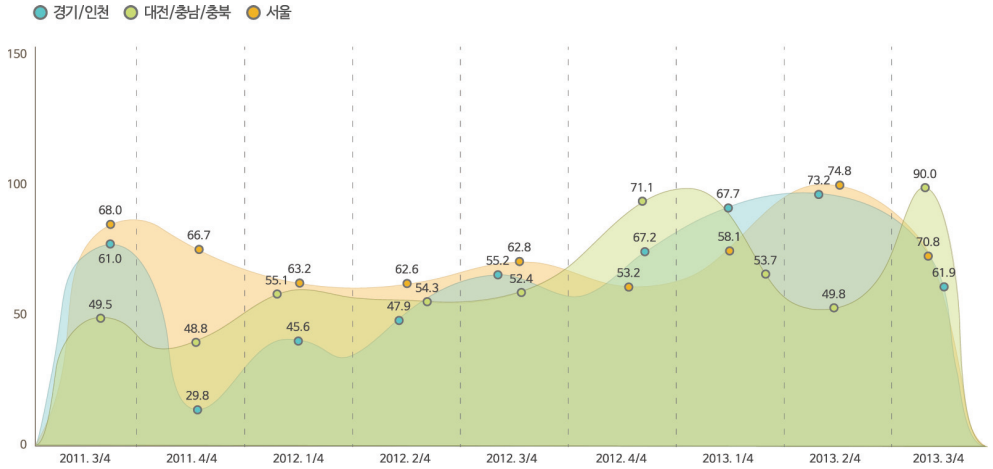
제품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은 78.6p로 전분기 83.5p 대비 4.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3.4p 대비 5.2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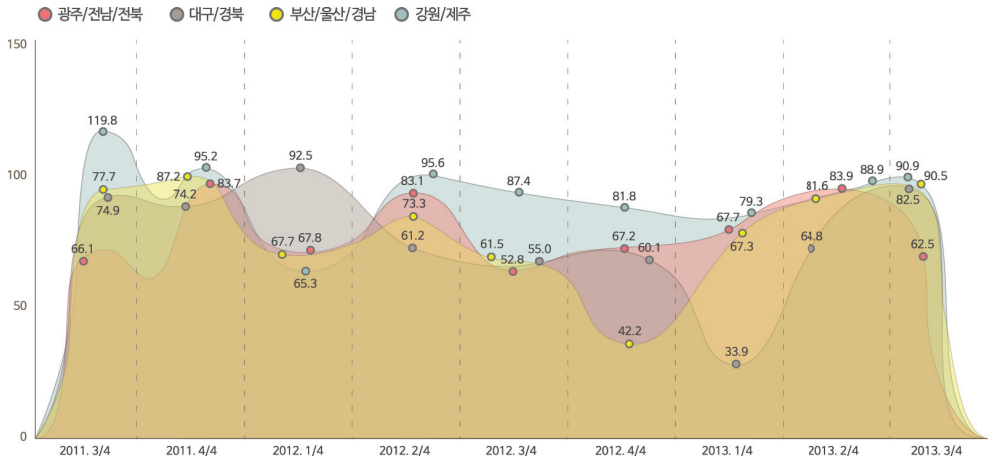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은 74.5p로 전분기 71.8p 대비 2.7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55.7p 대비 18.8p 상승하였음

인테리어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은 68.4p로 전분기 76.0p 대비 7.6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58.8p 대비 9.6p 상승하였음

기타전문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은 71.9p로 전분기 68.9p 대비 13.6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55.9p 대비 16.0p 상승하였음

지역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서울권 서울지역의 경기지수는 70.8p로 전분기 74.8p 대비 4.0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2.8p 대비 8.0p 상승하였음

경인권 경기/인천지역의 경기지수는 61.9p로 전분기 73.2p 대비 11.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55.2p 대비 6.7p 상승하였음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지역의 경기지수는 90.0p로 전분기 49.8p 대비 40.2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52.4p 대비 37.6p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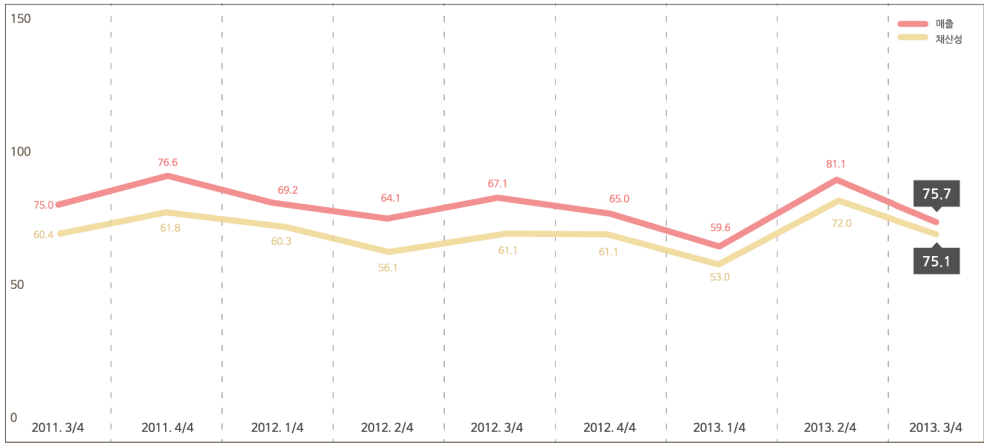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경기지수는 62.5p로 전분기 83.9p 대비 21.4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52.8p 대비 9.7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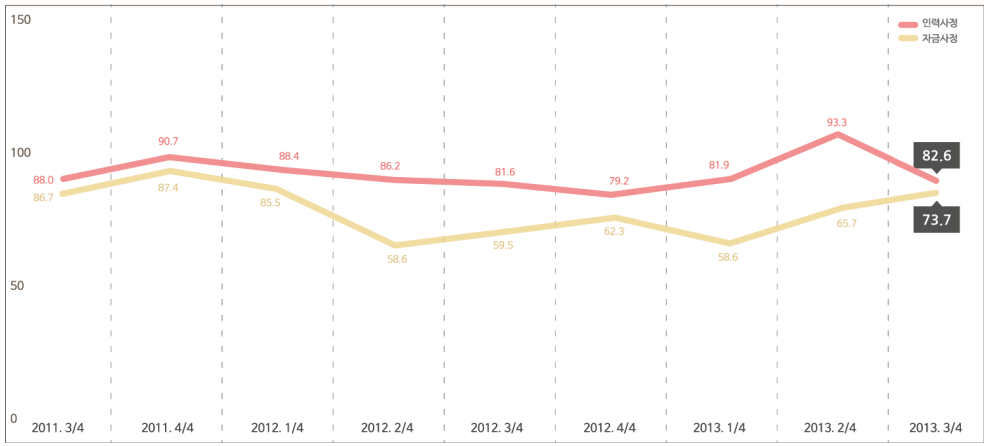
대경권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지수는 82.5p로 전분기 64.8p 대비 17.7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55.0p 대비 27.5p 상승하였음

동남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지수는 90.5p로 전분기 81.6p 대비 8.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1.5p 대비 30.0p 상승하였음

기타권 강원/제주지역의 경기지수는 90.9p로 전분기 88.9p 대비 1.0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87.4p 대비 3.6p 상승하였음

경영부문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매출 매출지수는 75.7p로 전분기 81.1p 대비 5.4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7.1p 대비 8.6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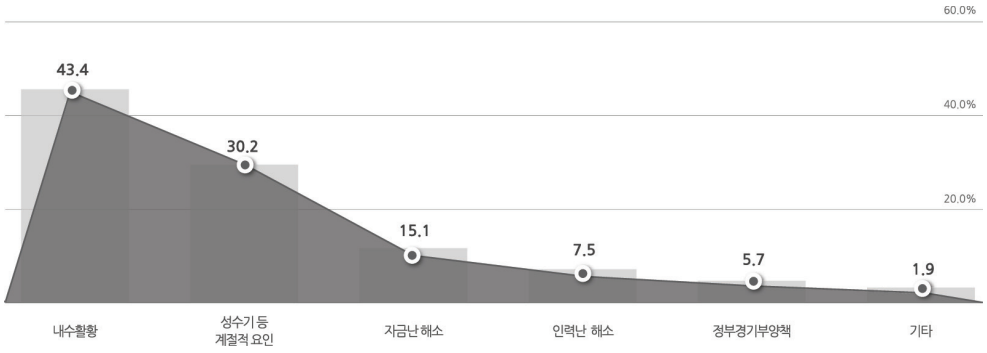
채산성 채산성지수는 75.1p로 전분기 72.0p 대비 3.1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1.1p 대비 14.0p 상승하였음

인력사정 인력사정지수는 82.6p로 전분기 93.3p 대비 10.7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1.6p 대비 1.0p 상승하였음

자금사정 자금사정지수는 73.7p로 전분기 65.7p 대비 8.0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59.5p 대비 14.2p 상승하였음

2012년 1분기 이전까지는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경기현황을 조사함
2012년 2분기 이후 각각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자금사정으로 조정됨

3분기 경기 호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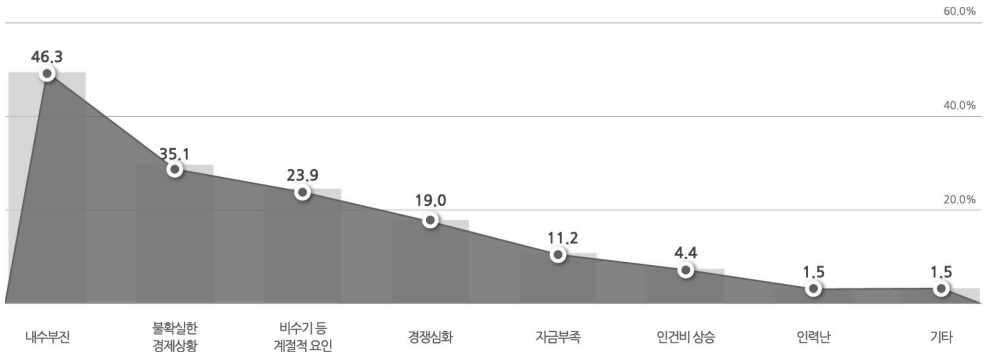


3분기 경기 호전 이유로 '내수활황'(43.4%)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30.2%), '자금난 해소'(15.1%), '인력난 해소'(7.5%), '경기부양정책'(5.7%) 순으로 높게 나타남

'내수활황'은 제품디자인(77.8%) 업종에서 더욱 높았고,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은 시각디자인(46.7%) 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내수활황	성수기등 계절적 요인	자금난 해소	인력난 해소	정부경기 부양책	기타
전체		43.4	30.2	15.1	7.5	5.7	1.9
업종	제품	77.8	22.2	11.1	0.0	0.0	0.0
	시각	13.3	46.7	13.3	20.0	6.7	0.0
	인테리어	40.0	35.0	10.0	5.0	10.0	5.0
	기타전문디자인업	66.7	0.0	33.3	0.0	0.0	0.0
규모	9인 이하	37.8	35.1	13.5	10.8	5.4	2.7
	10인 이상	56.3	18.8	18.8	0.0	6.3	0.0
권역별	서울	40.7	33.3	11.1	11.1	7.4	3.7
	경기/인천	33.3	22.2	33.3	0.0	11.1	0.0
	대구/경북	50.0	25.0	25.0	0.0	0.0	0.0
	광주/전남/전북	0.0	50.0	50.0	0.0	0.0	0.0
	대전/충남/충북	66.7	0.0	0.0	33.3	0.0	0.0
	부산/울산/경남	71.4	28.6	0.0	0.0	0.0	0.0
	강원/제주	0.0	100.0	0.0	0.0	0.0	0.0

3분기 경기 악화 이유



3분기 경기 악화 이유로 '내수부진'(46.3%)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불확실한 경제상황'(35.1%)으로 나타남. 이어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23.9%), '경쟁심화(19.0%), '자금부족'(11.2%), '인건비 상승'(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대부분의 계층에서 '내수부진'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기타전문디자인(65.9%), 제품디자인(54.2%) 업종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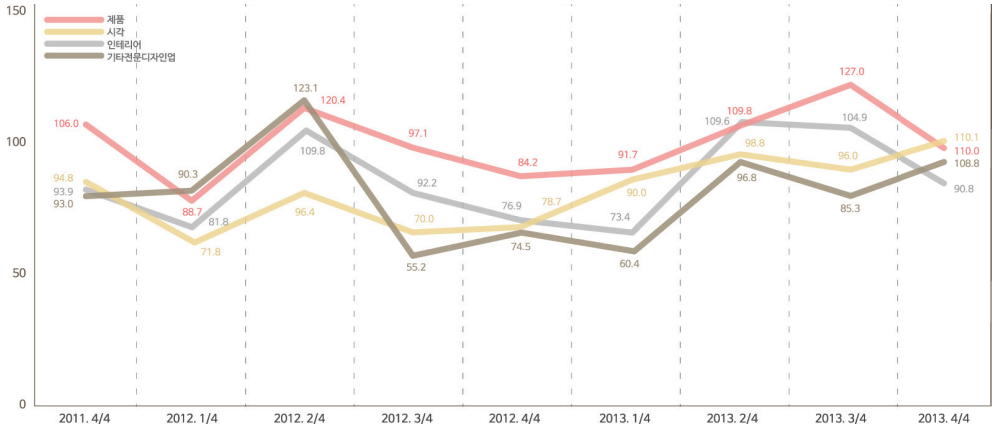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비수기등 계절적 요인	경쟁심화	자금부족	인건비 상승	인력난	기타
전체		46.3	35.1	23.9	19.0	11.2	4.4	1.5	1.5
업종	제품	54.2	33.3	33.3	16.7	4.2	4.2	0.0	0.0
	시각	40.0	36.7	30.0	25.0	3.3	1.7	0.0	0.0
	인테리어	38.8	38.8	22.5	22.5	22.5	8.8	3.8	3.8
	기타전문디자인업	65.9	26.8	12.2	4.9	4.9	0.0	0.0	0.0
규모	9인 이하	47.4	38.0	24.1	19.7	10.9	5.1	2.2	1.5
	10인 이상	44.1	29.4	23.5	17.6	11.8	2.9	0.0	1.5
권역별	서울	45.2.0	39.1	18.3	20.9	8.7	4.3	0.0	1.7
	경기/인천	44.4	26.7	28.9	15.6	17.8	2.2	2.2	2.2
	대구/경북	45.5	45.5	9.1	18.2	0.0	0.0	0.0	0.0
	광주/전남/전북	41.2	35.3	47.1	17.6	23.5	11.8	11.8	0.0
	대전/충남/충북	50.0	25.0	25.0	0.0	25.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63.6	27.3	36.4	18.2	0.0	9.1	0.0	0.0
	강원/제주	100.0	0.0	50.0	50.0	0.0	0.0	0.0	0.0

2. 2013년 4/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종합

(경기전반) 전문디자인업의 2013년 4/4분기 경기전망지수(D-BSI)는 105.6p로 전분기 103.9p 보다 1.7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79.1p 대비 26.5p 상승하였음

업종별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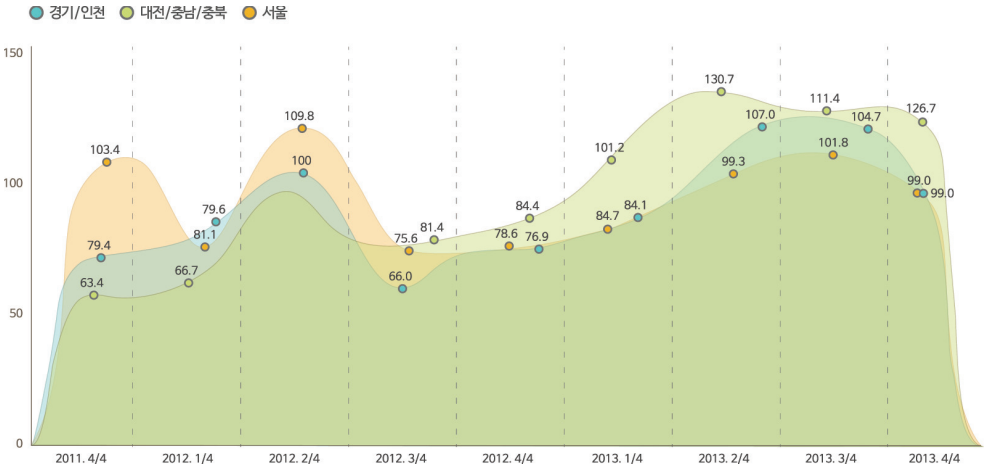
제품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은 110.0p로 전분기 127.0p 대비 17.0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4.2p 대비 25.8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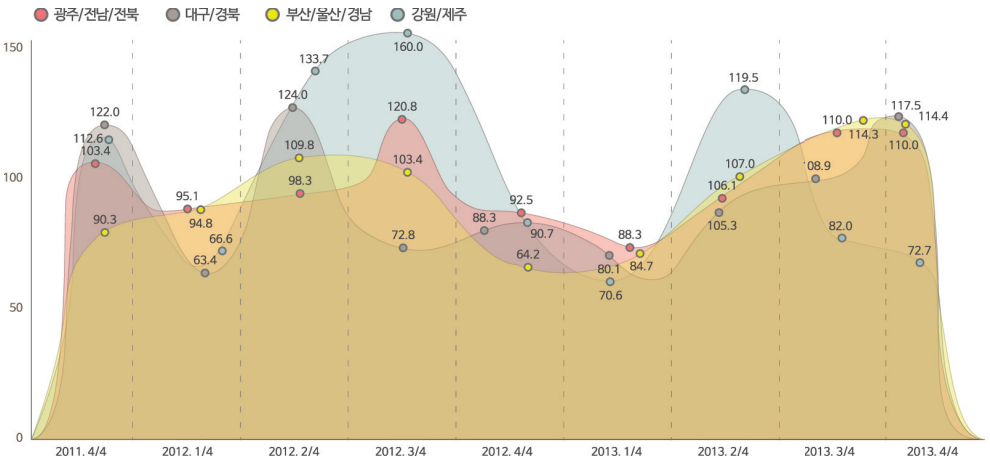
인테리어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은 90.8p로 전분기 104.9p 대비 14.1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6.9p 대비 13.9p 상승하였음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은 110.1p로 전분기 96.0p 대비 14.1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8.7p 대비 31.4p 상승하였음

기타전문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은 108.8p로 전분기 85.3p 대비 15.5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4.5p 대비 34.3p 상승하였음

지역별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서울권 서울지역의 경기지수는 99.0p로 전분기 101.8p 대비 2.8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8.6p 대비 20.4p 상승하였음

경인권 경기/인천지역의 경기지수는 99.0p로 전분기 104.7p 대비 5.7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6.9p 대비 22.1p 상승하였음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지역의 경기지수는 126.7p로 전분기 111.4p 대비 15.3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84.4p 대비 42.3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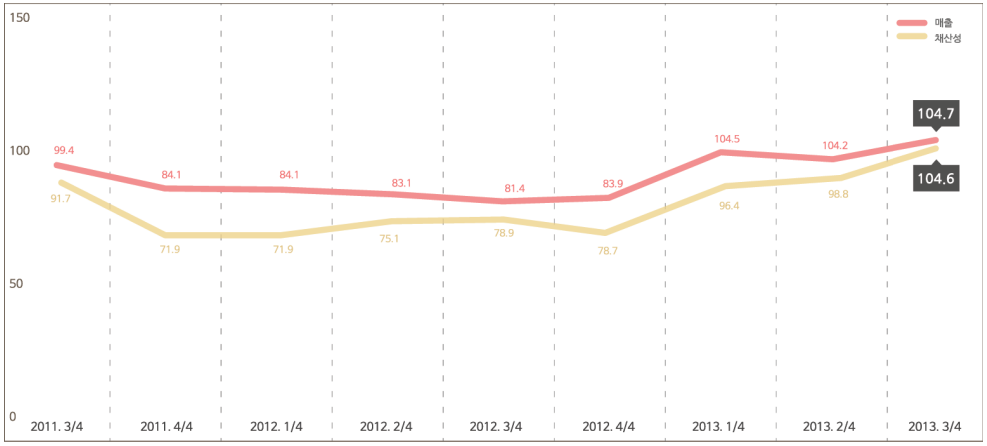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경기지수는 110.0p로 전분기 110.0p 대비 동일하고, 전년 동분기 92.5p 대비 17.5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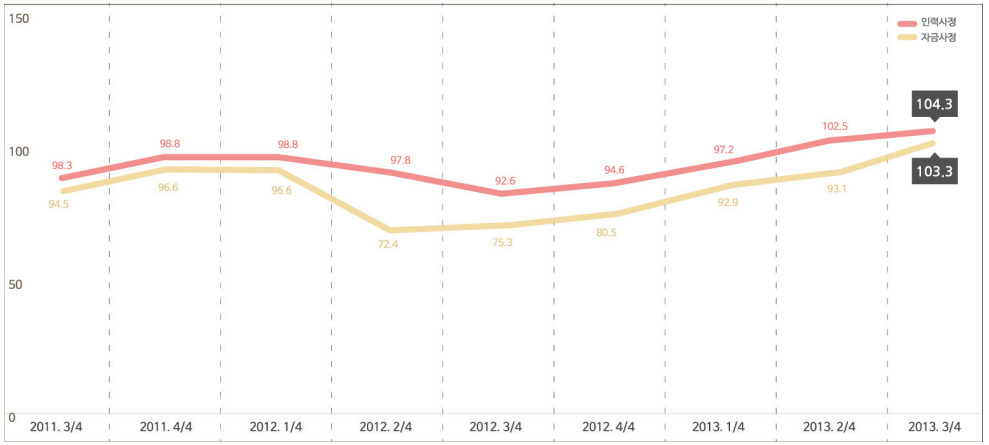
대경권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지수는 117.5p로 전분기 108.9p 대비 8.6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88.3p 대비 29.2p 상승하였음

동남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지수는 114.4p로 전분기 114.3p 대비 0.1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4.2p 대비 50.2p 상승하였음

기타권 강원/제주지역의 경기지수는 72.7p로 전분기 82.0p 대비 9.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90.7p 대비 18.0p 하락하였음

경영부문별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매출 매출지수는 104.7p로 전분기 104.2p 대비 0.5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1.4p 대비 23.3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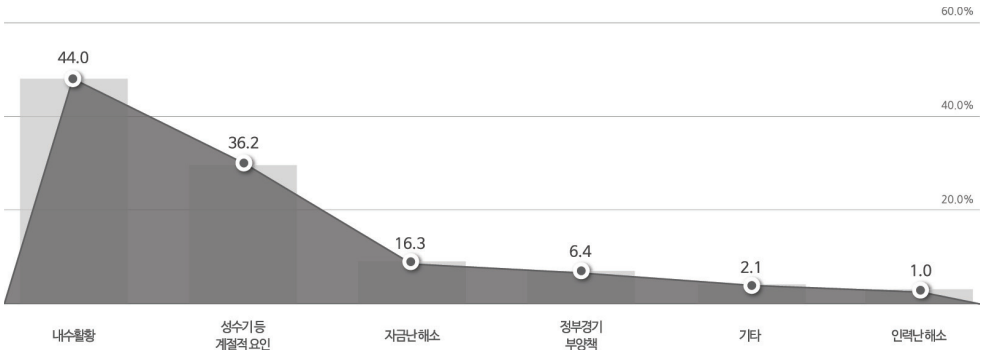
채산성 채산성지수는 104.6p로 전분기 98.8p 대비 5.8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8.9p 대비 25.7p 상승하였음

인력사정 인력사정지수는 104.3p로 전분기 102.5p 대비 1.8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2.6p 대비 11.7p 상승하였음

자금사정 자금사정지수는 103.3p로 전분기 93.1p 대비 10.2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5.3p 대비 28.0p 상승하였음

* 2012년 1분기 이전까지는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경기현황을 조사함
2012년 2분기 이후 각각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자금사정으로 조정됨

4분기 경기전망 호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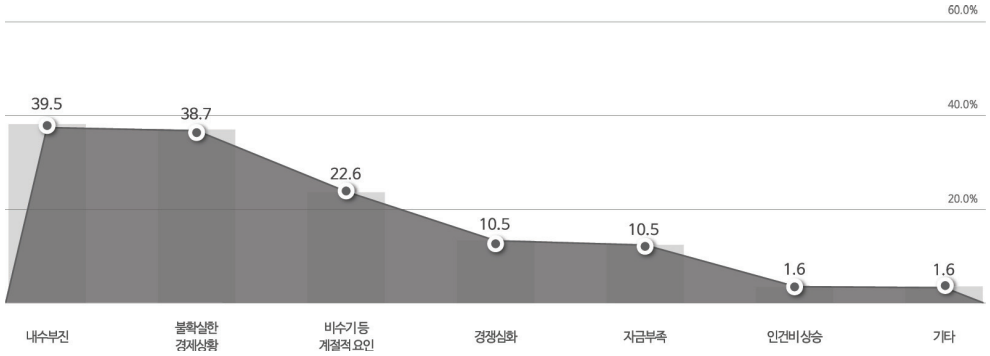


4분기 경기 호전 전망 이유로 '내수활황'(44.0%)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36.2%), '자금난 해소'(16.3%), '정부경기부양책'(6.4%) 순으로 높게 나타남

'내수활황'은 기타전문디자인(84,4%) 업종에서 더욱 높았고,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은 시각디자인(76.5%)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내수활황	성수기등 계절적 요인	자금난 해소	정부경기 부양책	기타	인력난 해소
전체		44.0	36.2	16.3	6.4	2.1	1.0
업종	제품	66.7	4.8	33.3	0.0	0.0	0.0
	시각	9.8	76.5	7.8	20.0	3.9	0.0
	인테리어	43.2	29.7	18.9	5.0	2.7	2.7
	기타전문디자인업	84.4	0.0	15.6	0.0	0.0	0.0
규모	9인 이하	43.8	38.5	15.6	5.2	3.1	0.0
	10인 이상	44.4	31.1	17.8	8.9	0.0	2.2
권역별	서울	48.5	29.4	16.2	8.8	4.4	1.5
	경기/인천	42.3	30.8	23.1	11.5	0.0	0.0
	대구/경북	41.7	33.3	25.0	0.0	0.0	0.0
	광주/전남/전북	0.0	87.5	12.5	0.0	0.0	0.0
	대전/충남/충북	38.5	46.2	15.4	0.0	0.0	0.0
	부산/울산/경남	61.5	38.5	0.0	0.0	0.0	0.0
	강원/제주	0.0	100.0	0.0	0.0	0.0	0.0

4분기 경기전망 악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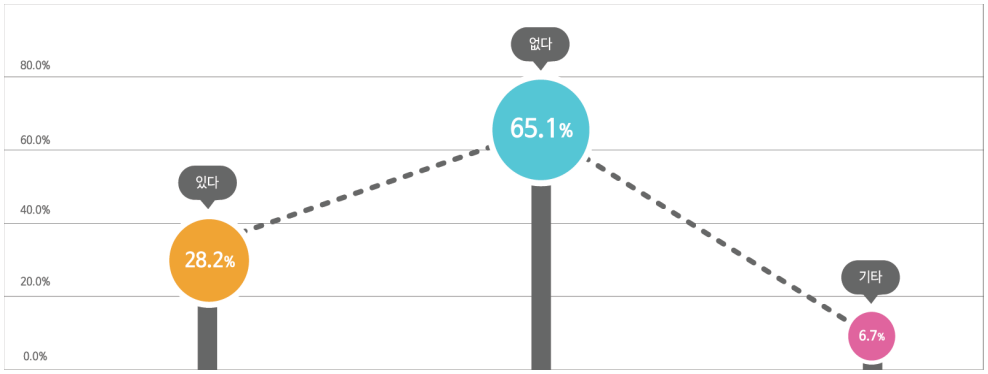
4분기 경기 악화 전망 이유로 '내수부진'(39.5%)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불확실한 경제상황'(38.7%)으로 나타남. 이어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22.6%), '경쟁심화 '(10.5%), '자금부족'(10.5%), '인건비 상승'(1.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각디자인업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46.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타전문디자인업종은 '내수부진'(54.4%)을 가장 많이 꼽음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비수기등 계절적 요인	경쟁심화	자금부족	인건비 상승	기타
전체		39.5	38.7	22.6	10.5	10.5	1.6	1.6
업종	제품	42.9	42.9	21.4	21.4	7.1	0.0	0.0
	시각	37.5	46.9	21.9	3.1	0.0	0.0	0.0
	인테리어	33.9	37.5	26.8	14.3	16.1	3.6	3.6
	기타전문디자인업	54.5	27.3	13.6	4.5	13.6	0.0	0.0
규모	9인 이하	36.9	40.5	25.0	10.7	10.7	1.2	2.4
	10인 이상	45.0	35.0	17.5	10.0	10.0	2.5	0.0
권역별	서울	43.1	38.9	15.3	0.0	11.1	1.4	0.0
	경기/인천	29.6	44.4	18.5	25.0	18.5	0.0	7.4
	대구/경북	40.0	40.0	60.0	11.4	0.0	0.0	0.0
	광주/전남/전북	50.0	0.0	50.0	8.1	0.0	25.0	0.0
	대전/충남/충북	20.0	40.0	60.0	11.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42.9	14.3	42.9	0.0	0.0	0.0	0.0
	강원/제주	50.0	75.0	25.0	3.1	0.0	0.0	0.0

3. 전문디자인기업 인력현황

● 고용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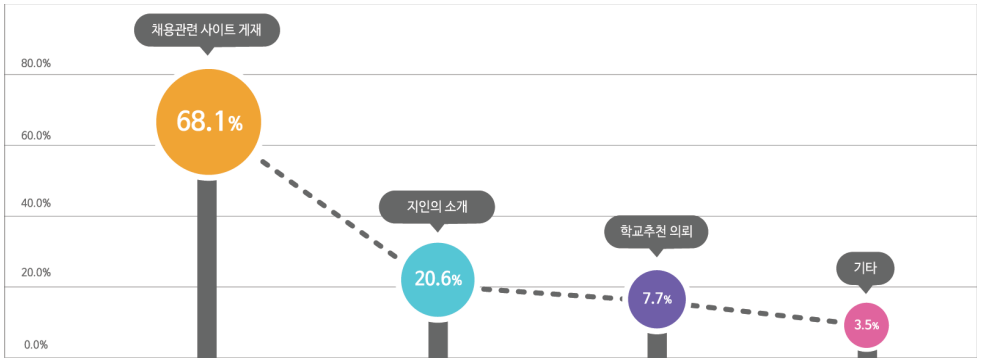


향후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없다'(65.1%)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28.2%의 비율을 보여줌

모든 계층에서 고용 확대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인테리어디자인(70.9%) 업종 및 호남(80.0%)지역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있다	없다	기타
	전체	28.2	65.1	6.7
업종	제품	28.6	65.7	5.7
	시각	28.7	62.8	8.5
	인테리어	24.0	70.9	5.1
	기타전문디자인업	34.2	58.8	7.0
규모	9인 이하	28.0	65.6	6.4
	10인 이상	28.6	64.0	7.4
권역별	서울	31.5	62.0	6.5
	경기/인천	21.6	74.2	4.1
	대구/경북	35.0	57.5	7.5
	광주/전남/전북	17.5	80.0	2.5
	대전/충남/충북	33.3	63.3	3.3
	부산/울산/경남	19.0	59.5	21.4
	강원/제주	27.3	72.7	6.8

● 채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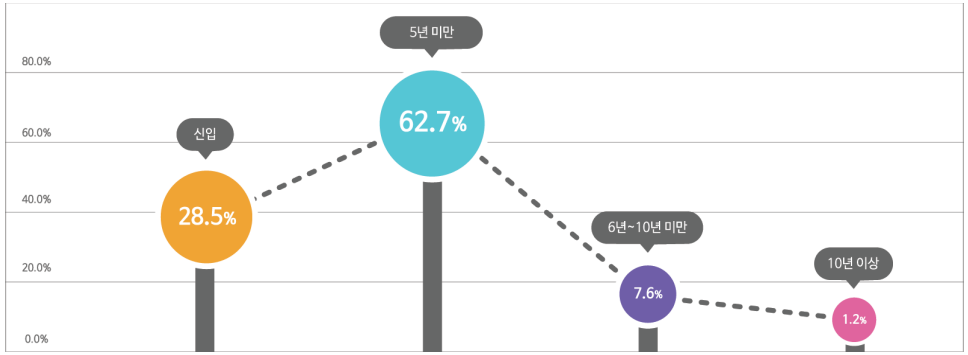


채용방식은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68.1%), '지인의 소개'(20.6%), '학교추천 의뢰'(7.7%) 순으로 나타났음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는 기타전문디자인업(71.1%), 동남권(81.0%)이 높게 나타남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	지인의 소개	학교추천 의뢰	기타
	전체	68.1	20.6	7.7	3.5
업종	제품	70.0	25.7	4.3	0.0
	시각	70.2	24.5	4.8	0.5
	인테리어	63.8	22.4	12.2	1.5
	기타전문디자인업	71.1	7.9	7.0	14.0
규모	9인 이하	63.1	25.4	7.6	3.8
	10인 이상	79.4	9.7	8.0	2.9
권역별	서울	68.8	21.4	5.8	3.9
	경기/인천	67.0	22.7	8.2	2.1
	대구/경북	65.0	15.0	12.5	7.5
	광주/전남/전북	52.5	35.0	12.5	0.0
	대전/충남/충북	70.0	16.7	10.0	3.3
	부산/울산/경남	81.0	7.1	9.5	2.4
	강원/제주	72.7	9.1	9.1	9.1

선호하는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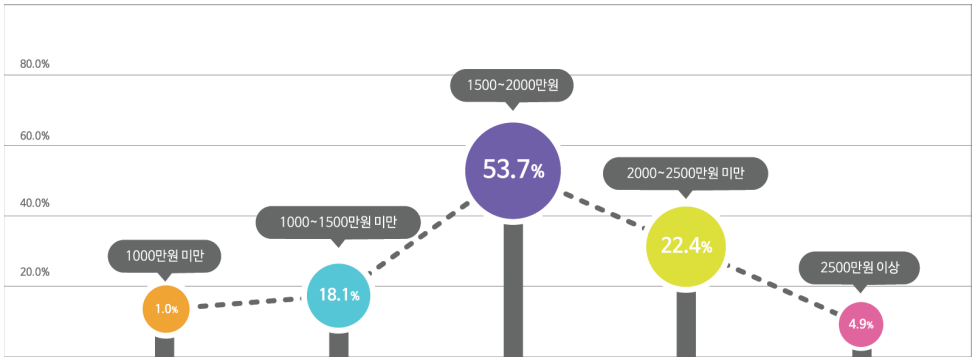


채용 시 선호하는 경력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은 '5년 미만'(62.7%), '신입'(28.5%), '6년~10년 미만'(7.6%), '10년 이상'(1.2%) 순으로 나타났음

모든 계층에서 '5년 미만'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제품디자인(70.0%)업종 및 강원/제주(81.8%) 지역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신입	5년 미만	6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28.5	62.7	7.6	1.2
업종	제품	27.1	70.0	1.4	1.4
	시각	26.1	62.8	10.6	0.5
	인테리어	25.5	61.7	10.2	2.6
	기타전문디자인업	38.6	59.6	1.8	0.0
규모	패션/텍스타일	29.0	63.4	6.4	1.3
	서비스/ 경험	27.4	61.1	10.3	1.1
권역별	서울	34.1	59.1	6.5	0.3
	경기/인천	16.5	67.0	11.3	5.2
	대구/경북	32.5	55.0	10.0	2.5
	광주/전남/전북	22.5	67.5	10.0	0.0
	대전/충남/충북	20.0	73.3	6.7	0.0
	부산/울산/경남	26.2	69.0	4.8	0.0
	강원/제주	18.2	81.8	0.0	0.0

신입사원 급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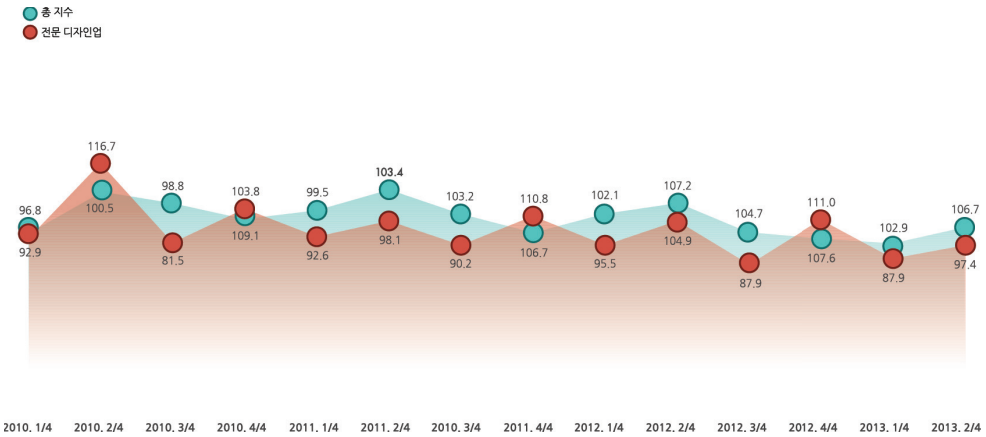
신입사원의 급여주준은 '1500~2000만원'(53.7%), '2000~2500만원'(22.4%), '2500만원 이상'(4.9%) 순임

모든 계층에서 '1500~2000만원'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기타전문디자인(63.2%)업종과 대경권(70.0%) 지역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1000만원 미만	1000~1500만원 미만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미만	2500만원 이상
전체		1.0	18.1	53.7	22.4	4.9
규모	제품	0.0	8.6	58.6	31.4	1.4
	시각	1.1	21.3	46.8	23.4	7.4
	인테리어	1.0	21.9	53.1	18.9	5.1
	기타전문디자인업	0.9	12.3	63.2	21.1	2.6
규모	9인 이하	0.8	20.6	53.2	21.6	3.8
	10인 이상	1.1	12.6	54.9	24.0	7.4
권역별	서울	1.0	17.2	54.2	22.7	4.9
	경기/인천	1.0	16.5	45.4	28.9	8.2
	대구/경북	2.5	17.5	70.0	5.0	5.0
	광주/전남/전북	0.0	17.5	50.0	30.0	2.5
	대전/충남/충북	0.0	23.3	53.3	20.0	3.3
	부산/울산/경남	0.0	19.0	61.9	16.7	2.4
	강원/제주	0.0	45.5	36.4	18.2	0.0

4.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전문디자인업 생산 지수 불변지수



2013년 2/4분기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는 97.4p로 나타남. 전분기 87.9p 대비 9.5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07.2p 대비 9.8p 낮음.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는 106.7p로 전분기(102.9p) 대비 3.8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04.9p보다 낮게 나타남

* 2012년 4분기까지 전문디자인업 생산 지수 및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는 2005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2013년 1분기 부터는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 통계개편(2013.02)'으로 인해 전체 지수가 2010년 기준으로 조정됨

서비스업 생산지수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핵심지표로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소의 서비스 동향분석 및 연구자료, GDP 추계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

출처 KOSIS

II. 3/4분기 국내 디자인업계 주요 이슈

잡스법, 크라우드 펀딩, SNS.. 창조산업의 든든한 후원자로 떠오르다

ⓒbesuccess.com

- 2013년 9월 23일, 미국의 잡스법(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생기업 육성방안)'이 개정됨
-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자금 조달 방식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포괄하고, 크라우드펀딩의 법적인 허용을 포함함
- 잡스법을 통해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은 공개적으로 투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오픈되어 있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말을 퍼뜨리는 것도 가능함
- 이 개정안은 스타트업과 투자자와의 더 많은 연결고리가 생겨 효과적으로 사업 계획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 여러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투자 유치 과정의 시간을 단축 시켜 줌
-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에서도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디자이너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

1. 제품 출시 전에 시장 상황을 미리 엿볼 수 있는 테스트 마켓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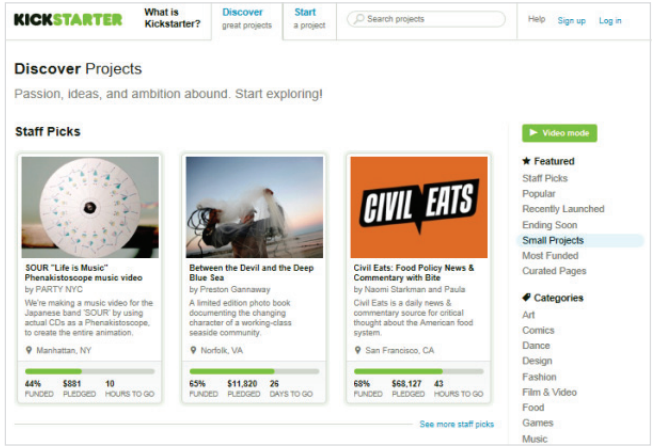
– 디자이너는 대중들에게 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됐는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얻기 이전에 공감을 먼저 얻는 과정이 필요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후원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반응 정도를 가늠하게 되고 모금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짓게 됨

2. 온라인에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SNS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제품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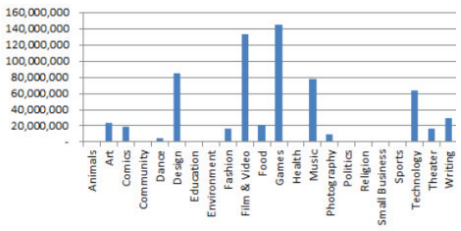
3. 디자이너가 다른 걸림돌 없이 미래의 사용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음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이들의 의견이 결과물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함

●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 / 미국



ⓒwww.kickstart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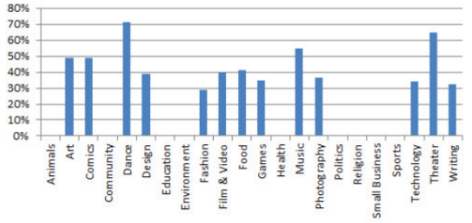
2009년 4월 출범한 대표적인 소셜펀딩 플랫폼. 프로젝트에 기부해서 목표액이 넘으면 프로젝트에 돈을 내 주고, 목표액이 안 될 시 돈을 내지않는 시스템
총 115,888개의 프로젝트가 킥스타터 내에서 벌어졌으며, 그 중 3,921개가 현재 진행중이고, 모든 프로젝트 총합 8억 4백만 달러가 모였으며, 그 중 6억 8천8백만 달러가 성공한 프로젝트에 몰림. 성공한 프로젝트 비율은 43.9%. (www.kickstarter.com/help/stats – 2013년 9월 28일 기준)



ⓒwww.crowdri.org

킥스타터 영역별 펀딩 금액

킥스타터의 영역별 펀딩 금액을 비교해 보면 게임, 영화, 디자인, 음악분야 순임. 게임을 필두로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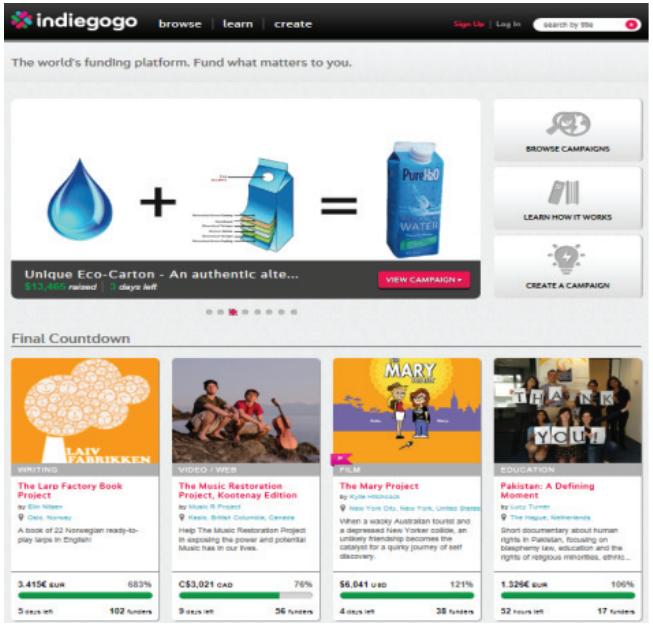


ⓒwww.crowdri.org

킥스타터 영역별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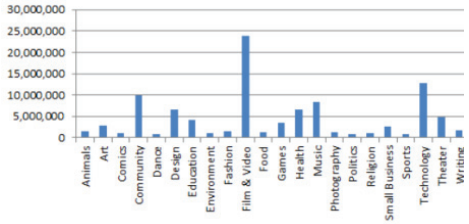
춤과 영화가 70%에 육박하며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은 40%가 채 안되는 상황. 게임은 기술영역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인디고고 / 영국



©www.indiegog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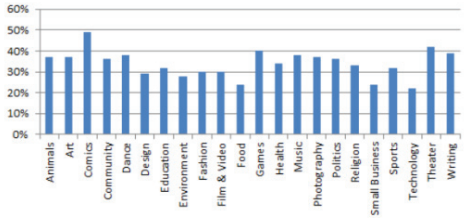
2008년 1월 출범
크라우드 펀딩 업계의 진정한 선두주자이며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함
creative 와 관련한 문화, 예술, 기술 프로젝트 외에도 cause 와 같은 자선 크라우드 펀딩, entrepreneurial 과 같은 사업 아이템 등 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프로젝트 들을 다루고 있음
이들의 모토는 'DIWO (Do-It-With-Others · 함께 하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올리고 원하는 프로젝트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목표 모금액에 도달하지 못해도 모금액을 전달한다는 점이 킥스타터와의 차이점



©www.crowdri.org

인디고고 영역별 펀딩 금액

인디고고의 영역별 펀딩 금액 비중을 보면 영화, 기술, 커뮤니티 순으로 높음
커뮤니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인디고고에서 공익성 캠페인이 많이 열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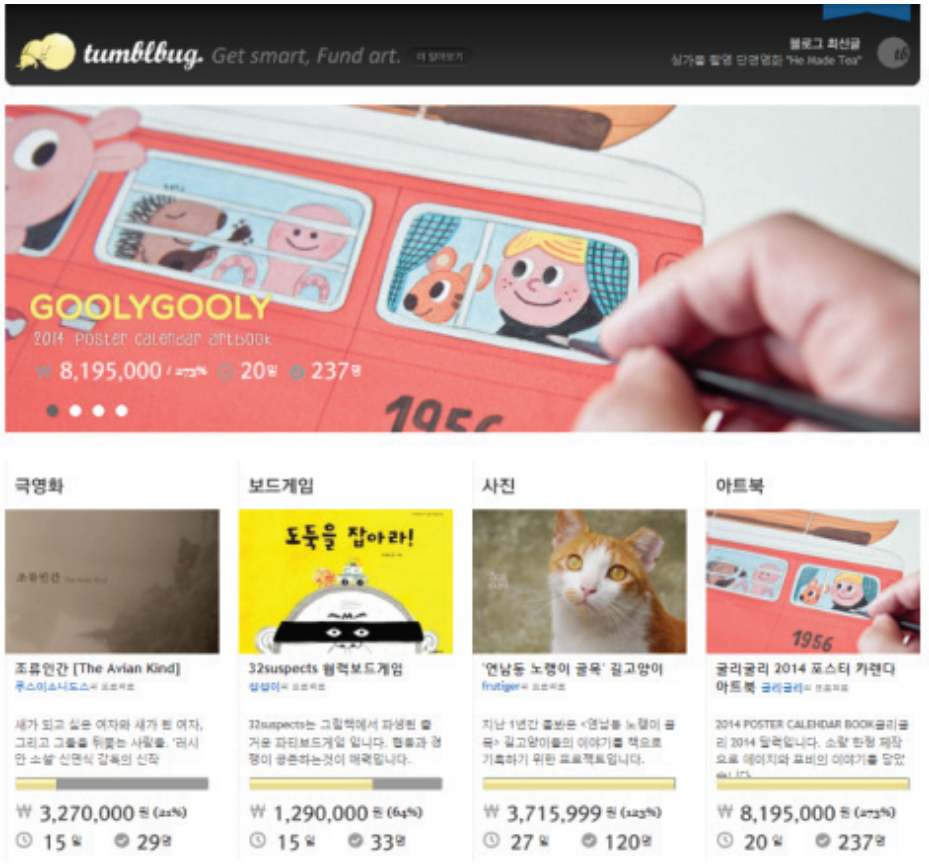


©www.crowdri.org

인디고고 영역별 성공률

킥스타터와는 다르게 다양한 영역에서 고른 성공률을 보임
평균 성공률이 킥스타터보다는 낮지만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건 펀딩이 필요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펀딩을 시도하고 있는 오픈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 / 한국



©tumblbug.com

문화창작을 위한 펀딩 플랫폼 '텀블벅'

텀블벅(대표 염재승)은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중 하나로 예술, 문화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독립 문화창작자들의 지원을 목표로 한 펀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음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예술 학교 학생부터 기존의 작가, 미술가, 음악인, 영화제작자, 디자이너, 공연기획자와 미디어아티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사회의 분산된 자본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숨은 시도와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음

자료원 : platum.kr, besuccess.com, www.crowdri.org, 월간 디자인 2013. 10.

디자이너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위트스튜디오 어시스터 PS 출시

디자인 마무리 작업을 자동화해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을 만들도록 지원

▲ 어시스터PS 모습

어시스터PS 란

- 디자이너가 개발자에게 작업물을 보낼 때 작업물에 수치 표시하는 기능을 함
- 아이콘 크기나, 전체 이미지 파일에서 위치, 글꼴 정보 등을 포토샵 파일 위에 자동으로 표시하고 단추나 배경 이미지 등 포토샵 파일 하나에 있는 디자인 요소를 하나씩 파일로 자동 저장
- 단순 반복 업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 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장점

지난 6월28일 어시스터 PS 정식 버전이 출시됨
업계에선 "꼭 필요했던 기능"이라며 즉각적인 반응이 왔고 제품 출시 한 달여 만에 다음커뮤니케이션 휴맥스 인프라웨어 삼성메디슨 등 대기업과 와일리 PXD 등 정보기술(IT) 디자인 관련 업체, 다양한 중소기업의 구매가 잇따름

위트스튜디오는 디자인 과정을 기획과 디자인, 마무리 3개 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계획임
어시스터PS는 3단계 중 마무리에 해당함. 2단계 디자인용 제품인 코디네이터는 시범 서비스 중이고, 1단계 기획에 해당하는 제품은 '매니저'(가칭)란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임

자료원 : bloter.net, S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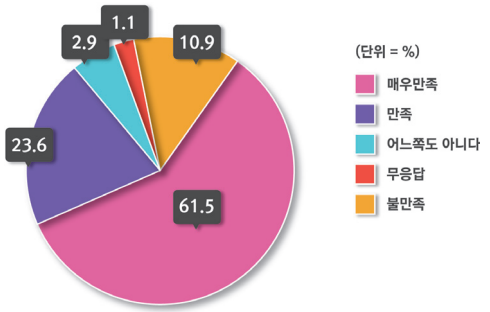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이었던 유니버설디자인 (UD,Universal Design),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조명

왜 유니버설디자인인가

- 평균 수명 연장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층이 두터워지며 필요성 급증
- 다문화 가정등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어나며 외국인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대두
- 표준화,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가치와 개성을 중시하는 정보화 사회, 시민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즉, 사회가 배려하지 못한 장애인, 노인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각각의 개성까지도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

유니버설디자인 상품·서비스·시설 사용에 따른 만족도 조사

- 일본 UD 포럼이 일본 15~79세 남여를 582명을 대상으로 조사
- 전체 응답자 중 67.5%가 UD가 적용된 상품, 시설,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고 싶다고 대답
- UD가 적용된 상품, 시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 10.9%, 만족 61.5%, 어느쪽도 아니다 23.6%, 무응답 2.9%, 불만 1.1%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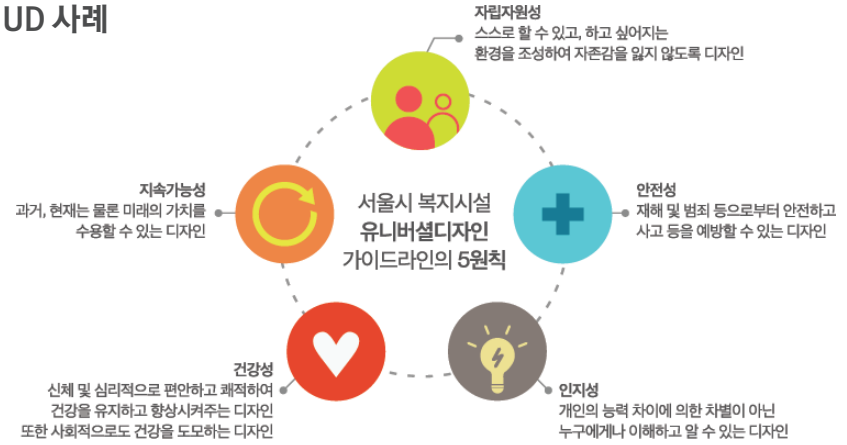
ⓒ 일본 유니버설 디자인 포럼

이러한 수요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UD는 소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계가 반드시 채택해야할 필수 디자인으로 떠오르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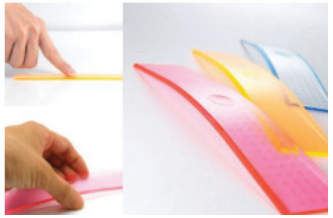
UD 국내 주요 정책 현황 및 사례

시기	주체	내용
2008년	경기도 화성시	국내 최초로 '화성시 공공시설물 UD 조례' 제정
2010년	서울시	노인복지센터,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UD 가이드라인 발표
2011년	경기도	– UD를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듦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 공공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통해 공공시설 건축이 이 가이드라인 지침에 벗어나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함
2013년	서울시	–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별도(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조례제정까지 검토 중 – 지금까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2종의 가이드라인과 장애인과 노숙인 관련 가이드라인 6종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여성, 보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음
	경기도	– UD 조례를 올해 안에 재정하기 위해 관련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음 –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른 공공청사나, 공공공원 등에 UD 도지사 인증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

UD 사례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원칙(예시)



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줍기 쉽지 않은 점에 착안, 모양을 살짝 휘어 바닥에 떨어뜨려도 쉽게 주울 수 있게 함. 길이를 잴 때는 휜 부분을 눌러 일자로 만듦. 손이 작은 어린아이나, 손의 움직임이 둔한 어르신에게 더욱 유용한 아이템

유모차나 휠체어가 별다른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쉽게 다닐 수 있게끔 쇼핑몰에 턱을 없앰. 쇼핑하다 쉴 수 있는 벤치들이 곳곳에 놓여있고, 식물들도 가득함. 화장실, 식수대 등을 표시하는 픽토그램은 누구나 쉽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

▲ 위 휘어진자, 아래 롯데몰 김포공항점

왼쪽은 상부장에 거울 설치해 보이지 않는 그릇을 볼수 있게 했고, 오른쪽은 싱크 하부장 리셋으로 공간을 확보해 쉽게 설거지를 할수 있도록 함

▲ 현대 힐스테이트 골든팩

UD 해외 현황 및 사례

미국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을 만들어 (American with Disabilites Act) 공공편의시설, 교통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한다고 명시

일본 1990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정보처리기기의 억세서빌리티(Accessibility) 지침 도입을 시작으로, 건축물 사용 편의를 위한 하트빌딩(Heart Building)법, 제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 배리어프리(Barrier-free)법을 차례로 제정

유럽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건축 환경, 교통, 제품 및 상품, 정보, 공공서비스, 교육, 고용 등과 같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접근해 커뮤니티 라이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의회 장애인 행동계획 2006-2015'를 수립

노르웨이 'UD 행동계획 2025'를 마련함. UD로 국민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

영국 특정 공간이나 건물에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지난 2003년 설립된 다이렉트 인쿼리어리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휠체어사용자, 청각·시각 장애인, 유모차 사용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

스페인 접근성과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조건을 규정하기 위해 '1차 국가 접근성계획 2004-2012'를 수립. 접근성과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조건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연구들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목표

오스트리아 초저상 차량(ULT) 시스템을 도입해 실내 계단이나 턱을 없애고 승객들에게 시각적 촉각적 안내를 하는 한편, 바닥이 낮으면서 승하차 높이 조절장치를 갖춘 운송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승객들의 전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함

자료원 : www.lafent.com, 뉴스토마토

3분기 디자인업계 기타 주요 이슈

행사/전시 관련

1. 세계 3대 디자인 전시 중 하나인 영국의 100%디자인 전시회에서 한국 디자인이 주목됨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부터 공감각을 활용한 독특한 테이블웨어, 인테리어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관람객의 호평을 받음

2. 베이징에서 K-디자인 전시회

베이징에서 5회째 개최되는 `디자인 위크` 행사 기간을 맞이해 디자인진흥원,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공동 기획으로 '디자인의 도시 – 2013 디자인 여행'이라는 주제로 전시회 개최

3.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2013 AYDW(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추진

한국,대만,일본 3국의 Young Designer 교류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아시아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시아 디자인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Asia Young Designer Workshop'사업을 기획, 추진 중

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월드클래스 300기업과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결해 주는 '2013 WC300/ATC-디자인기업 상생협력 포럼' 개최

월드클래스300(World Class 300) 기업 및 ATC(우수기술연구센터지원사업)기업의 개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

5. 불교문화사업단-디자인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 공동 개발과 관련 지식정보 교환, 특히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케이-디자인(K-Design) 개발 사업을 통해 전통 불교문화 콘텐츠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 상품으로 진행할 예정

정책 관련

1. 경기도,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CPTED) 개발 완료

- 공공사업 우선 적용과 시범사업 추진
- 구도심, 골목길, 스쿨존 등 범죄 사각지대 범죄 예방 해소 기대

2. 한국디자인진흥원, 특허청 공동으로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

-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 주는 권리보호제도로, 디자인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www.publish.kidp.or.kr)을 통하여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 받을 수 있음

3. 융합형 디자인 리더 육성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신인 디자이너 역량 강화를 도울 **K디자인아카데미** 운용과 더불어 내년부터 차세대 디자인 리더 양성사업 재개
- 스타 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인 디자인 오디션 프로그램 **K디자인 콘테스트**를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해 스타 등용문으로 활용할 계획
- 세계적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인 영국 왕립예술학교(RCA)와 기술전문 교육기관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은 학제교류 프로그램 **RCA-IDE**를 활용해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을 싣고 있음
- 삼성그룹도 올해 초 인문계 전공자를 뽑아 사내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키우겠다고 선언함
- 국민대도 통섭형 인재 양성을 기치로 내걸며 자동차융합대학을 만듦

4.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업종을 구체화한 '디자인 산업 특수 분류 체계'를 마련함
- 기존 대·중·소·세분류 각 1개, 세세 분류 4개로 구분된 전문디자인업과 별도로 공간, 패션·텍스타일, 서비스·경험 등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산업분야를 포함한 디자인 산업 특수분류 체계 (대분류 8개·중 분류 42개·소분류 154개)를 마련함

Ⅲ. 부록1

덴마크, 통합 에너지형 디자인 개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아름다움, 환경보호 동시 달성하는 건축 디자인

- 덴마크,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새로운 건축 디자인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달성 및 삶의 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
  - 덴마크의 유명한 건축가 Henning Larsen은 통합 에너지형 디자인(Integrated Energy Design)을 개발함. 이는 도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
  - 통합에너지형 디자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위치 변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의 최대 80%까지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 예를 들어 건물의 지정학적 위치, 바닥의 높이, 일조량, 건물의 모양, 주변 기후나 지형, 벽지 및 바닥의 재질, 천장의 높이 등 모든 것이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침
  - 총 이산화탄소 사용량의 40%는 건축물에서 배출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건축 디자인의 환경보호 의의도 큼

- 디자인 속 지속 가능성 부여
  - 지속 가능성은 현대화 이후 늘 중요 이슈가 돼옴
  -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며 디자인의 미적 아름다움 달성도 가능함
  - 지속 가능성의 정도(에너지 절감 정도)는 측정 가능해야 함
  - 지속 가능성의 질적 발전과 양적 발전이 동시에 추구돼야 함

- Henning Larsen의 통합 에너지형 디자인(지속 가능한 건축물 개념 적용)이 실제 사용된 건축물 예시
  - 독일 뮤닉(Munich)시에 있는 세계적 풍력회사인 Simens사 본부
  - Simens사는 Henning Larsen의 건축 디자인이 미적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적 측면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밝힘
  - 덴마크 기후 및 에너지부의 'Energinet' 본부
  - Energinet 본부는 이 건축 개념을 선택한 주된 이유가 에너지효율성이라고 밝힘. 일조량을 최대로 이용한 건물의 위치, 크기, 새로운 창문의 여닫는 방식 등을 통해 약 15%의 에너지 소모 감축이 가능했다고 밝힘
  - 건물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건물의 냉각과 열의 저장을 용이하게 함.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가 더 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환기 시스템도 적용

- 덴마크식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세계적으로 환경보호가 점차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 개발된 '에너지 통합형 디자인'의 전망이 밝음
  - 국내 건축업계도 이 디자인 형태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있도록 보완·개발하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최근 1~2년간 국내에서 북유럽식의 실용적이고 심플한 건축 및 가구, 디자인이 크게 유행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새로운 디자인 형태에 주목할 가치가 있음
  - 이 통합 에너지형 건축물은 미적 측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비용절감, 환경보호 측면 등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음
  - Henning Larsen는 많은 국제 자격증을 보유한 국제적 경험이 많은 건축가이므로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및 공동 건축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출처 : www.globalwindow.org

Ⅳ. 부록2

1.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 조사설계

모집단	전문디자인업체
표본 수	568업체
표본추출방법	권역/업종/규모별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 (Proportionate Quota & Systematic Sampling)
표본오차	±3.6%포인트(95%신뢰수준)
주요조사내용	경기전반, 매출, 채산성, 자금사정, 인력사정에 대한 실적 및 차분기 전망 등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방법	전화조사 (Telephone Survey)
조사기간	2013년 09월03일 ~ 09월06일

● 조사설계

분기별 전문디자인업체 경기조사 (D-BSI : Design Business Survey Index) 를 통해 산업경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산업 분야별·지역별·경영부문별 경기 전망 및 실적을 파악하여 전문디자인 업체의 경영전략 수립과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업종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 디자인산업 경기조사는 전문디자인업체의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기예측기법임
- 조사결과인 디자인산업 경기지수는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조사한 것임

$$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BSI가 기준치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적음을 나타냄

- 분기별 전문디자인업체 경기조사는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패션, 섬유, 귀금속 및 장신구 등) 등 총 4개 세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568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
- 표본은 업종과 지역을 고려하여 층화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 가중치는 설계 가중값,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하여 작성

제1층 7개 권역(서울/경인/충청/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호남/강원제주)
제2층 4개 업종(시각/제품/인테리어/기타전문디자인업)
제3층 2개 규모(9인 이하/10인 이상)

층화추출법: 전체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을 일련의 하위집단들로 층화시킨 다음 각 하위집단에서 적절한 수의 표본을 뽑아내는 방법

응답업체 특성

BASE: 전체응답자		조사 사례수	가중 사례수	비율 (%)
전체		(568)	(3,982)	100.0
업종	제품	70	1,037	26.0
	시각	188	1,410	35.4
	인테리어	196	875	22.0
	기타전문디자인업	114	660	16.6
규모별	9인 이하	393	3,540	88.9
	10인 이상	175	442	11.1
권역별	서울	308	2,491	62.7
	부산/울산/경남	97	526	13.2
	대구/경북	40	189	4.7
	광주/전남/전북	40	203	5.1
	대전/충남/충북	30	199	5.0
	경기/인천	42	284	7.1
	강원/제주	11	85	2.1

지수 활용상의 유의점

- 디자인산업 경기지수조사에 있어서 매분기 지수는 전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특정분기의 경기 동향은 전분기의 동향과 상호 연관되어 파악하여야 함
- 산업별 동향에 있어서 회답업체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이들의 대표성이 문제되어 동종목의 경기 동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예 : 강원·제주지역 등)
- 일반적으로 조사표 작성자는 경기회복기에는 경기전망을 낙관적으로 응답하고 후퇴기에는 비관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실시된 조사결과는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 상한 200, 하한 0의 범위 내에서 기준선 100을 갖는 D-BSI의 변동추이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값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성격을 편의적으로 정의하여 적용하였음

매우호조 (D-BSI 150이상) **호 조** (D-BSI 110이상~150미만)
보 합 (D-BSI 90이상~110미만) **부 진** (D-BSI 50이상~90미만) **매우부진** (D-BSI 50미만)

2. 2013년 3/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전망 조사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2013년 3/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디자인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조사, 발표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과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으나 이번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 말씀 드리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귀사에서 응답한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 문의 및 송부처 :

▼ 1. 우선 기업 일반현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면 접 원	

사업체명	
연락처	지역번호 포함 ( ) –
업종	①제품 ②시각 ③인테리어 ④기타전문디자인업 □패션, □섬유, □귀금속/장신구, □기타( )
지역(시/도)	
기업구분	

▼ 2. 지금부터 귀사의 2013년 3분기 경기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1. 귀사의 2013년 3분기의 전반적인 경기는 2분기에 비해 어떠했습니까?

호전 1 ····· 동일 2 ····· 악화 3

2-1-1. (호전 응답자) 경기가 호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① 내수활황 ② 정부경기부양책 ③ 자금난해소 ④ 성수기등 계절적요인 ⑤ 인력난해소 ⑥ 기타( )

2-1-2. (악화 응답자) 경기가 악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① 내수부진 ② 경쟁심화 ③ 불확실한경제상황 ④ 자금부족 ⑤ 비수기등계절적요인
⑥ 인력난 ⑦ 인건비상승 ⑧ 기타 ( )

2-2. 사업 부분별로 2013년 2분기 대비 2013년 3분기의 경기 실적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호전	동일	악화
1	귀사의 지난 3분기 매출은 2분기 대비 어떠했습니까?	①	②	③
2	귀사의 채산성(순이익)은 어떠했습니까?	①	②	③
3	귀사의 자금사정(자금조달, 부채상환 등)은 어떠했습니까?	①	②	③
4	귀사의 인력사정(인력수급)은 어떠했습니까?	①	②	③

▼ 3. 지금부터는 2013년 4분기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귀사의 2013년 4분기 전반적인 경기는 2013년 3분기에 비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호전될 것 같다 1 ····· 동일할 것 같다 2 ····· 악화될 것 같다 3

3-1-1. (호전 응답자) 4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수활황 ② 정부경기부양책 ③ 자금난해소 ④ 성수기등 계절적요인 ⑤ 인력난해소 ⑥ 기타( )

3-1-2. (악화 응답자) 4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수부진 ② 경쟁심화 ③ 불확실한경제상황 ④ 자금부족 ⑤ 비수기등 계절적요인
⑥ 인력난 ⑦ 인건비상승 ⑧ 기타 ( )

3-1-3. 사업 부분별로 2013년 3분기 대비 2013년 4분기의 경기전망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호전	동일	악화
1	귀사의 매출은 3분기 대비 4분기에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2	귀사의 채산성(순이익)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3	귀사의 자금사정(자금조달, 부채상환)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4	귀사의 인력사정(인력수급)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 4. 지금부터는 귀사의 인력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4-1. 귀사는 향후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4-2. 귀사의 채용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 ② 지인의 소개 ③ 학교추천 의뢰 ④ 기타( )

4-3. 귀사는 채용을 할 경우 주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선호합니까?

① 신입 ② 5년 미만 ③ 6년~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4-4. 귀사의 신입사원 급여 수준은 어떠합니까?

① 1000만 원 미만 ② 1000~1500만 원 미만 ③ 1500~2000만 원 미만
④ 2000~2500만 원 미만 ⑤ 2500만 원 이상

3.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전반적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12. 4/4	13. 1/4	13. 2/4	13 3/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74.0 (97.5)	63.2 (105.6)	68.4 (96.0)	68.4 (96.7)	65.2 (81.0)	63.3 (109.4)	62.5 (79.7)	61.2 (79.1)	56.2 (81.7)	59.4 (103.7)	74.2 (103.9)	73.8 (105.6)	-0.4 (1.7)
업종별	제품	63.2 (104.7)	66.2 (110.2)	79.5 (104.4)	72.6 (106.0)	62.9 (88.7)	69.9 (120.4)	66.5 (97.1)	73.4 (84.2)	54.1 (91.7)	56.6 (109.6)	83.5 (127.0)	78.6 (110.0)	-4.9 (-17.0)
	시각	79.9 (98.6)	61.4 (98.6)	63.8 (96.4)	65.4 (94.8)	71.3 (71.8)	63.1 (96.4)	58.0 (70.0)	55.7 (78.7)	69.2 (90.0)	59.3 (98.8)	71.8 (96.0)	74.5 (110.1)	2.7 (14.1)
	인테리어	62.1 (96.6)	71.0 (112.6)	67.7 (90.3)	71.5 (93.9)	60.2 (81.8)	61.5 (109.8)	68.6 (92.2)	58.8 (76.9)	50.5 (73.4)	65.9 (109.8)	76.0 (104.9)	68.4 (90.8)	-7.6 (-14.1)
	기타	55.6 (85.3)	49.5 (105.2)	65.4 (92.4)	64.6 (93.0)	61.9 (90.3)	56.5 (123.1)	57.4 (55.2)	55.9 (74.5)	40.8 (60.4)	55.3 (96.8)	68.9 (85.3)	71.9 (108.8)	3.0 (23.5)
지역별	서울	75.0 (95.1)	65.7 (106.2)	68.6 (95.2)	68.0 (98.9)	66.7 (81.1)	63.2 (110.4)	62.6 (75.6)	62.8 (78.6)	53.2 (80.1)	58.1 (99.3)	74.8 (101.8)	70.8 (99.0)	-4.0 (-2.8)
	경기/인천	88.0 (111.4)	63.7 (99.4)	90.8 (111.1)	77.7 (90.3)	83.7 (94.8)	67.7 (109.8)	73.3 (103.4)	61.5 (64.2)	42.2 (84.7)	67.3 (107.0)	81.6 (114.2)	61.9 (99.0)	-11.3 (-5.7)
	대전/충남/충북	55.6 (119.8)	83.2 (128.1)	71.6 (103.8)	74.9 (122.0)	74.2 (63.4)	92.5 (124.0)	61.2 (72.8)	55.0 (88.3)	60.1 (78.3)	33.9 (105.3)	64.8 (108.9)	90.0 (126.7)	40.2 (15.3)
	광주/전남/전북	54.9 (115.1)	35.1 (112.3)	74.0 (113.6)	66.1 (103.4)	87.2 (95.1)	67.8 (98.3)	83.1 (120.8)	52.8 (92.5)	67.2 (88.3)	69.2 (106.1)	83.9 (110.0)	62.5 (110.0)	-21.4 (0.0)
	대구/경북	110.2 (106.9)	50.7 (102.6)	46.0 (88.6)	49.5 (63.4)	48.8 (66.6)	55.1 (92.6)	54.3 (81.4)	52.4 (84.4)	71.1 (101.2)	53.7 (130.7)	49.8 (111.4)	82.5 (117.5)	17.7 (8.6)
	부산/울산/경남	71.7 (87.3)	53.0 (93.7)	51.3 (73.5)	61.0 (79.4)	29.8 (79.6)	45.6 (100.0)	47.9 (66.0)	55.2 (76.9)	63.1 (84.1)	67.7 (107.6)	73.2 (104.7)	90.5 (114.3)	8.9 (0.1)
	강원/제주	52.0 (88.1)	89.7 (88.4)	109.0 (141.4)	119.8 (112.6)	95.2 (66.7)	65.3 (133.7)	95.6 (160.0)	87.4 (90.7)	81.8 (70.6)	79.3 (119.5)	88.9 (82.0)	90.9 (72.7)	2.0 (-9.3)
부분별	매출	77.0 (102.7)	68.1 (107.0)	76.1 (99.4)	76.3 (99.4)	76.6 (84.1)	69.2 -	64.1 (83.1)	67.1 (81.4)	65.0 (83.9)	58.6 (104.5)	81.1 (104.2)	75.7 (104.7)	-5.4 (0.5)
	채산성	69.2 (95.5)	60.0 (96.6)	68.4 (86.9)	60.4 (91.7)	61.8 (71.9)	60.3 -	56.1 (75.1)	61.1 (78.9)	62.3 (80.5)	53.0 (96.4)	72.0 (98.8)	75.1 (104.6)	3.1 (5.8)
	인력사정	88.4 (105.4)	87.8 (101.0)	94.3 (99.9)	88.0 (98.3)	90.7 (98.8)	88.4 -	86.2 (97.8)	81.6 (92.6)	79.2 (94.6)	81.9 (97.2)	93.3 (102.5)	82.6 (104.3)	-10.7 (1.8)
	자금사정	84.9 (102.4)	85.8 (100.8)	93.8 (104.9)	86.7 (94.5)	87.4 (96.6)	85.5 -	58.7 (72.4)	59.5 (75.3)	61.1 (78.7)	59.6 (92.9)	65.7 (93.1)	73.7 (103.3)	8.0 (10.2)

( )내는 전망치

매출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12. 4/4	13. 1/4	13. 2/4	13 3/4	전분기 대비변동폭
전체		77.0 (102.7)	68.1 (107.0)	76.1 (99.4)	76.3 (99.4)	76.6 (84.1)	69.2 -	64.1 (83.1)	67.1 (81.4)	65.0 (83.9)	58.6 (104.5)	81.1 (104.2)	75.7 (104.7)	-5.4 (0.5)
업종별	제품	87.2 (103.9)	72.5 (112.7)	88.9 (107.7)	72.0 (110.8)	80.0 (95.1)	82.4 -	65.6 (99.4)	80.6 (83.9)	63.0 (88.5)	56.4 (109.4)	89.8 (119.6)	72.9 (107.1)	-16.9 (-12.5)
	시각	86.2 (105.7)	64.3 (102.2)	69.8 (97.1)	70.4 (91.9)	79.5 (77.9)	63.1 -	61.1 (79.0)	59.5 (83.2)	75.8 (90.3)	58.2 (98.5)	80.4 (97.3)	77.1 (110.6)	-3.3 (13.3)
	인테리어	71.4 (102.3)	76.5 (108.6)	70.6 (98.0)	89.5 (104.3)	69.8 (81.8)	65.6 -	69.8 (87.9)	65.2 (78.4)	53.9 (76.8)	61.9 (108.8)	85.1 (112.9)	73.0 (92.3)	-12.1 (-20.6)
	기타	47.2 (93.6)	56.9 (108.8)	83.9 (95.2)	75.1 (93.5)	75.2 (85.9)	69.5 -	59.6 (59.6)	63.6 (78.0)	61.4 (73.7)	58.3	63.6 (86.2)	80.7 (104.4)	17.1 (18.2)
지역별	서울	76.6 (104.0)	70.7 (108.7)	77.4 (97.6)	77.2 (103.5)	77.2 (83.2)	67.6 -	64.1 (80.1)	68.6 (81.2)	64.4 (82.9)	56.9 (100.7)	79.2 (103.4)	74.0 (100.6)	-5.2 (-2.8)
	경기/인천	80.8 (88.0)	56.8 (93.5)	54.2 (82.4)	58.7 (86.9)	55.1 (88.8)	54.7 -	55.6 (63.9)	63.5 (78.7)	65.0 (82.7)	67.7 (112.9)	81.9 (94.1)	68.0 (93.8)	-13.9 (-0.3)
	대전/충남/충북	102.9 (116.0)	59.1 (98.1)	56.2 (73.9)	51.3 (67.5)	61.1 (66.9)	64.7 -	60.5 (68.2)	56.8 (85.8)	71.1 (101.2)	46.1 (117.2)	73.3 (98.0)	100.0 (123.3)	26.7 (25.3)
	광주/전남/전북	59.8 (99.0)	45.6 (107.6)	82.3 (117.0)	90.4 (108.2)	97.1 (99.5)	75.3 -	79.2 (120.8)	63.8 (89.2)	74.3 (90.6)	70.7 (107.4)	93.7 (106.4)	67.5 (112.5)	25.6 (6.1)
	대구/경북	60.9 (101.1)	82.9 (124.0)	74.2 (103.1)	77.5 (97.9)	72.7 (65.6)	96.5 -	58.7 (80.1)	71.9 (92.5)	69.3 (81.6)	32.4 (102.0)	76.5 (102.3)	82.5 (115.0)	6.0 (12.7)
	부산/울산/경남	88.2 (101.1)	71.3 (105.0)	98.2 (126.0)	87.5 (94.5)	94.4 (100.6)	78.2 -	76.1 (117.0)	58.6 (68.2)	48.9 (68.2)	67.2 (93.2)	93.5 (129.2)	90.5 (109.5)	-3.0 (-19.7)
	강원/제주	72.5 (96.2)	83.1 (96.9)	119.7 (162.7)	106.4 (93.6)	95.2 (61.4)	79.6 -	66.7 (160.0)	84.8 (95.3)	86.7 (62.4)	90.0 (119.5)	86.2 (122.5)	81.8 (72.7)	-4.4 (-49.8)

( )내는 전망치

2012년 1/4분기까지는 마케팅 경기로 조사됨

채산성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12. 4/4	13. 1/4	13. 2/4	13 3/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69.2 (95.5)	60.0 (96.6)	68.4 (86.9)	60.4 (91.7)	61.8 (71.9)	60.3 –	56.1 (75.1)	61.1 (78.9)	62.3 (80.5)	53.0 (96.4)	72.0 (98.8)	75.1 (104.6)	3.1 (5.8)
업종별	제품	74.2 (103.1)	65.7 (96.8)	80.8 (97.1)	62.2 (104.1)	63.0 (82.9)	66.5 –	60.1 (89.4)	70.4 (81.0)	58.4 (83.6)	48.8 (104.6)	79.9 (113.5)	72.9 (108.6)	−7.0 (−4.9)
	시각	76.6 (101.3)	56.1 (96.8)	59.1 (97.1)	60.8 (104.1)	65.1 (82.9)	57.7 –	58.8 (70.8)	56.0 (80.5)	72.6 (89.3)	53.1 (92.4)	72.8 (91.5)	76.6 (110.1)	3.8 (18.6)
	인테리어	63.4 (86.7)	67.2 (107.8)	70.4 (86.5)	61.4 (93.1)	55.0 (64.9)	58.1 –	54.0 (80.1)	61.0 (75.7)	54.6 (71.3)	56.5 (99.6)	74.7 (105.0)	70.9 (92.3)	−3.8 (−12.7)
	기타	53.0 (84.5)	49.2 (91.2)	71.6 (89.8)	54.8 (86.6)	63.0 (84.4)	60.9 –	46.4 (55.6)	56.7 (76.4)	58.1 (70.4)	54.7 (87.5)	58.1 (85.8)	80.7 (102.6)	22.6 (18.8)
지역별	서울	70.0 (99.3)	61.5 (101.6)	69.5 (85.2)	58.8 (95.7)	63.7 (72.1)	59.3 –	59.1 (74.7)	63.2 (79.5)	61.3 (80.0)	52.2 (94.1)	70.3 (98.2)	74.0 (100.3)	3.7 (2.1)
	경기/인천	63.7 (81.7)	50.2 (81.2)	51.6 (80.0)	47.2 (68.8)	38.4 (74.9)	46.5 –	34.5 (54.5)	54.8 (75.9)	65.9 (82.9)	57.5 (108.0)	77.6 (83.2)	62.9 (92.8)	−14.7 (9.6)
	대전/충남/충북	139.9 (109.3)	42.1 (70.7)	46.7 (60.6)	39.6 (65.0)	40.8 (48.8)	69.1 –	43.4 (66.7)	46.9 (69.8)	68.8 (92.5)	46.1 (103.6)	62.6 (98.0)	100.0 (123.3)	37.4 (25.3)
	광주/전남/전북	59.1 (90.8)	41.5 (87.2)	80.4 (94.3)	79.9 (102.4)	88.5 (87.5)	69.0 –	73.4 (90.9)	54.1 (97.2)	78.7 (73.7)	60.9 (104.5)	75.5 (95.1)	67.5 (112.5)	−8.0 (17.4)
	대구/경북	53.8 (95.5)	75.1 (117.0)	66.2 (94.6)	70.1 (113.2)	73.0 (50.1)	88.0 –	51.9 (73.8)	67.0 (92.5)	57.5 (81.9)	38.6 (85.3)	71.5 (108.6)	82.5 (115.0)	11.0 (6.4)
	부산/울산/경남	64.9 (98.4)	63.1 (78.8)	83.6 (103.0)	81.5 (75.1)	60.0 (86.1)	51.9 –	71.0 (98.3)	55.3 (64.6)	45.2 (88.8)	59.1 (82.9)	79.3 (121.4)	90.5 (109.5)	11.2 (−11.9)
	강원/제주	78.9 (50.6)	106.9 (90.2)	100.1 (142.1)	58.2 (93.6)	67.2 (47.6)	56.1 –	42.2 (148.9)	78.8 (75.5)	86.7 (54.7)	62.8 (119.5)	76.0 (122.5)	81.8 (72.7)	5.8 (−49.8)

( )내는 전망치

2012년 1/4분기까지는 재무 부분으로 조사됨

인력사정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12. 4/4	13. 1/4	13. 2/4	13 3/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88.4 (105.4)	87.8 (101.0)	96.3 (99.9)	88.0 (98.3)	90.7 (98.8)	88.4 –	86.2 (97.8)	81.6 (92.6)	79.2 (94.6)	81.9 (97.2)	93.9 (102.5)	82.6 (104.3)	−10.7 (1.8)
업종별	제품	86.5 (104.3)	96.9 (105.1)	99.0 (103.7)	86.2 (101.0)	88.1 (107.8)	93.3 –	92.3 (102.9)	84.2 (93.0)	69.5 (90.0)	83.2 (98.0)	96.2 (108.7)	77.1 (111.4)	−19.1 (2.7)
	시각	87.5 (109.6)	89.0 (100.8)	90.3 (99.8)	92.0 (94.7)	88.3 (94.2)	86.0 –	83.1 (97.1)	76.1 (87.4)	81.5 (97.3)	84.0 (94.7)	90.1 (177.0)	84.6 (107.4)	−5.5 (−69.6)
	인테리어	92.2 (102.5)	81.2 (102.4)	91.6 (94.4)	88.5 (101.2)	90.6 (93.0)	88.1 –	80.8 (95.0)	77.6 (94.2)	75.4 (93.6)	80.2 (99.5)	175.0 (115.6)	79.6 (91.3)	−95.4 (−24.3)
	기타	87.1 (100.7)	82.6 (92.7)	102.5 (104.2)	79.5 (98.6)	100.4 (105.1)	86.6 –	93.0 (95.6)	94.2 (100.2)	95.0 (97.9)	77.7 (98.2)	92.9 (104.9)	91.2 (103.5)	−1.7 (−1.4)
지역별	서울	85.5 (106.4)	86.6 (102.0)	95.3 (97.8)	86.6 (100.0)	91.1 (97.1)	87.7 –	86.9 (98.5)	82.2 (94.0)	79.8 (94.6)	80.1 (94.0)	92.4 (105.3)	83.4 (101.6)	−9.0 (−3.7)
	경기/인천	89.1 (92.7)	90.4 (91.4)	83.4 (91.4)	73.7 (94.0)	77.1 (99.9)	83.9 –	76.5 (81.8)	84.2 (93.4)	76.7 (94.8)	88.3 (95.3)	90.6 (99.7)	79.4 (95.9)	−11.2 (−3.8)
	대전/충남/충북	115.8 (125.1)	68.8 (88.2)	93.8 (97.9)	78.5 (70.9)	99.5 (108.6)	87.5 –	77.5 (81.4)	72.8 (80.5)	74.7 (102.1)	83.4 (107.8)	94.5 (96.5)	96.7 (106.7)	2.2 (10.2)
	광주/전남/전북	100.8 (122.0)	87.9 (96.7)	91.9 (111.6)	110.9 (99.7)	85.7 (105.6)	83.3 –	81.8 (109.1)	77.4 (83.6)	92.7 (101.6)	78.1 (92.6)	97.2 (94.5)	77.5 (110.0)	−19.7 (15.5)
	대구/경북	94.1 (100.5)	101.2 (105.0)	81.7 (92.1)	100.5 (105.8)	101.9 (95.9)	97.5 –	100.0 (102.4)	76.0 (96.6)	72.3 (85.8)	85.2 (106.4)	92.0 (96.5)	87.5 (102.4)	−4.5 (5.9)
	부산/울산/경남	89.5 (114.4)	92.3 (114.6)	110.1 (129.5)	94.3 (97.4)	97.2 (107.8)	91.7 –	92.6 (114.2)	78.1 (88.2)	70.8 (103.8)	80.4 (105.2)	100.9 (102.7)	78.6 (102.4)	−22.3 (−0.3)
	강원/제주	100.0 (84.4)	91.7 (106.7)	120.7 (120.4)	100.0 (100.0)	99.2 (81.0)	105.1 –	86.7 (117.8)	99.8 (95.2)	95.6 (72.1)	95.2 (135.4)	100.0 (83.3)	100.0 (109.1)	0.0 (25.8)

( )내는 전망치

2012년 1/4분기까지는 인적자원관리로 조사됨

● 자금사정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12. 4/4	13. 1/4	13. 2/4	13 3/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84.9 (102.4)	85.8 (100.8)	93.8 (104.9)	86.7 (94.5)	87.4 (96.6)	85.5 –	58.7 (72.4)	59.5 (75.3)	61.1 (78.7)	59.6 (92.9)	65.7 (93.1)	73.7 (103.3)	8.0 (10.2)
업종별	제품	86.5 (102.0)	94.6 (106.7)	100.5 (114.0)	85.2 (98.7)	94.8 (109.7)	94.1 –	66.0 (82.1)	70.5 (78.4)	56.3 (85.3)	56.8 (97.4)	69.7 (170.8)	68.6 (105.7)	−1.1 (−65.1)
	시각	87.0 (108.1)	88.5 (101.7)	91.4 (99.2)	84.1 (87.2)	85.6 (90.5)	81.3 –	56.4 (68.2)	48.9 (75.7)	71.1 (85.1)	60.0 (88.8)	63.5 (164.2)	76.1 (111.2)	12.6 (−53.0)
	인테리어	86.4 (99.1)	77.9 (101.1)	88.9 (105.7)	94.7 (104.5)	80.4 (86.9)	81.2 –	55.9 (73.8)	54.2 (71.5)	21.1 (71.2)	64.1 (98.5)	70.3 (156.2)	69.9 (90.3)	−0.4 (−65.9)
	기타	74.3 (93.4)	79.0 (88.8)	98.9 (105.4)	81.9 (90.0)	91.1 (106.9)	89.2 –	57.6 (65.3)	70.6 (74.6)	62.3 (65.4)	57.3 (87.2)	62.4 (88.2)	81.6 (100.0)	19.2 (11.8)
지역별	서울	84.2 (102.6)	84.4 (100.7)	93.6 (103.9)	88.8 (96.7)	85.7 (92.2)	86.3 –	60.3 (72.0)	62.3 (76.1)	60.6 (78.6)	60.3 (90.6)	66.5 (90.6)	72.7 (99.0)	6.2 (8.4)
	경기/인천	81.3 (95.8)	75.4 (93.4)	93.2 (94.5)	55.7 (87.0)	81.9 (105.2)	83.6 –	40.6 (63.4)	51.9 (68.9)	67.7 (74.2)	55.0 (99.8)	60.8 (87.6)	61.9 (88.7)	1.1 (1.1)
	대전/충남/충북	99.2 (116.0)	78.9 (95.5)	99.9 (113.1)	62.1 (69.7)	87.9 (96.3)	80.1 –	60.5 (64.3)	53.2 (75.7)	65.6 (98.6)	60.2 (99.2)	44.8 (90.9)	93.3 (130.0)	48.5 (39.1)
	광주/전남/전북	99.7 (118.7)	80.9 (105.0)	89.8 (110.9)	95.5 (97.1)	92.7 (116.1)	82.8 –	69.5 (89.6)	59.1 (89.0)	67.4 (75.9)	72.4 (105.6)	70.2 (92.4)	67.5 (110.0)	−2.7 (17.6)
	대구/경북	80.1 (99.7)	102.9 (116.8)	88.8 (105.3)	112.4 (97.8)	93.3 (96.4)	86.0 –	67.5 (70.4)	62.1 (78.0)	49.1 (82.1)	49.0 (80.3)	63.9 (103.1)	85.0 (115.0)	21.1 (11.9)
	부산/울산/경남	91.3 (108.8)	104.6 (102.0)	99.7 (117.9)	93.0 (96.0)	102.9 (111.2)	82.7 –	61.9 (79.0)	47.6 (63.6)	48.3 (82.5)	55.5 (82.8)	75.3 (119.6)	90.5 (109.5)	15.2 (−10.1)
	강원/제주	78.1 (74.4)	108.5 (88.2)	100.0 (120.4)	100.0 (93.3)	79.6 (71.2)	92.9 –	51.1 (117.8)	64.7 (88.1)	85.0 (59.6)	70.9 (127.9)	78.8 (94.1)	90.9 (72.7)	12.1 (−21.4)

4. 산업일반 통계자료

● 비제조업 업황 BSI

	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업 황	68 (68)	65 (70)	68 (69)	68 (71)	67 (72)	69 (69)	67 (69)	67 (67)	(70)	0 (+3)
계절조정	69 (72)	67 (72)	69 (68)	65 (70)	64 (66)	67 (67)	67 (67)	70 (69)	(70)	+3 (+1)
매 출	77 (78)	77 (81)	77 (81)	79 (80)	76 (82)	76 (78)	78 (75)	77 (78)	(78)	−1 (0)
채 산 성	81 (76)	79 (85)	85 (86)	80 (85)	81 (82)	80 (82)	79 (79)	80 (79)	(82)	+1 (+3)
자금사정	83 (78)	81 (84)	81 (84)	81 (81)	79 (83)	81 (81)	82 (80)	79 (81)	(80)	−3 (−1)
인력사정	89 (90)	90 (91)	86 (90)	85 (88)	86 (85)	88 (87)	85 (89)	87 (86)	(87)	+2 (+1)

* 출처 : 한국은행

● 제조업 업황 BSI

	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업 황	70 (70)	71 (72)	75 (76)	79 (80)	80 (81)	79 (82)	72 (78)	73 (73)	(77)	+1 (+4)
계절조정	74 (73)	72 (76)	73 (75)	73 (77)	75 (75)	76 (78)	72 (76)	75 (74)	(78)	+3 (+4)
대 기 업	74 (74)	72 (73)	78 (78)	80 (83)	83 (82)	82 (83)	75 (81)	76 (76)	(80)	+1 (+4)
중소기업	66 (66)	69 (70)	71 (74)	77 (76)	76 (79)	75 (80)	69 (75)	70 (70)	(73)	+1 (+3)
수출기업	72 (75)	71 (73)	82 (75)	84 (85)	86 (86)	85 (89)	78 (86)	79 (80)	(82)	+1 (+2)
내수기업	69 (67)	71 (71)	70 (77)	75 (77)	75 (78)	75 (77)	69 (73)	70 (69)	(74)	+1 (+5)

주 : 1)( )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이하 동일)

* 출처 : 한국은행

종합경기 BSI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6	94.0	95.0	107.0	110.0	118.0	100.0	91.1	89.0	92.0	89.0	87.0	81.0
1997	73.0	71.0	82.0	80.0	86.0	84.0	87.0	82.0	88.0	92.0	77.0	63.0
1998	35.0	37.0	48.0	55.0	70.0	68.0	60.0	66.0	81.0	80.0	91.0	91.0
1999	98.0	101.0	106.0	109.0	119.0	120.0	114.0	120.0	119.3	130.0	123.8	118.8
2000	114.5	110.2	131.0	127.9	123.3	103.8	91.4	91.1	104.7	91.8	81.0	68.0
2001	62.7	83.0	102.4	107.7	115.5	114.3	104.6	90.2	98.0	75.9	85.0	101.3
2002	105.1	110.7	141.9	140.8	143.0	121.8	114.6	100.4	118.5	115.1	98.6	95.6
2003	91.9	89.3	109.0	90.2	108.1	96.4	90.3	91.4	109.6	110.3	102.8	98.7
2004	99.8	104.9	113.6	104.3	113.2	92.1	86.4	86.4	95.5	99.2	90.3	82.2
2005	77.8	85.7	119.2	117.6	114.1	105.1	96.5	91.7	111.4	110.2	107.8	103.8
2006	102.6	102.4	118.9	112.7	110.7	98.6	94.2	93.4	107.7	103.5	104.3	101.4
2007	96.5	93.4	112.3	107.7	110.9	105.6	97.6	102.5	111.8	116.3	112.4	103.4
2008	103.0	94.8	102.1	98.1	104.7	95.3	83.2	80.8	98.3	84.9	63.7	55.0
2009	52.0	66.0	76.1	86.7	103.8	100.2	98.7	99.8	117.0	116.5	109.0	105.9
2010	103.1	102.3	116.2	111.2	113.4	108.9	107.3	100.7	111.1	113.1	107.1	104.2
2011	101.8	98.0	113.5	99.3	104.3	104.3	101.3	98.9	96.3	101.4	96.4	94.8
2012	88.3	91.0	106.1	98.4	104.7	98.3	89.7	82.7	99.5	97.0	92.5	82.0
2013	85.7	86.7	104.4	101.5	99.8	97.2	90.7	92.7	94.4			

*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년 3/4분기 디자인산업 동향브리프

vol.13

발 행 인 이태용
발 행 처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총괄책임 손동범
발간기획 이동현
발간진행 서설옥
발행일 2013년 10월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략연구실 정책연구팀
031-780-2098, gexample@kidp.or.kr